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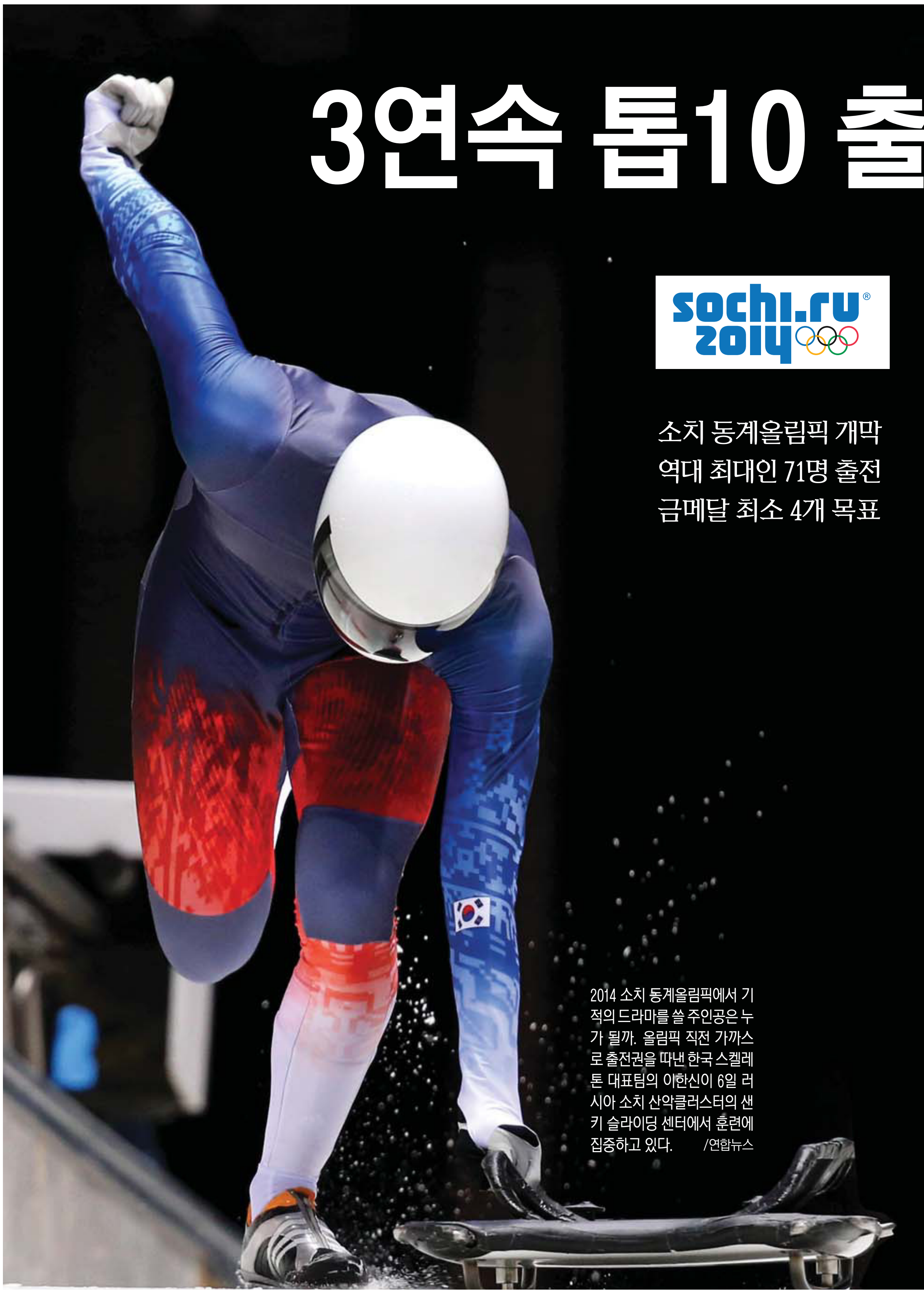
"목표는 트로트계 문익점"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7일 금요일 제2909호 www.metroseoul.co.kr



"첫 금메달은 제가 딸게요"

3연속 톱10 출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기적의 드라마를 쓸 주인공은 누가 될까. 올림픽 직전 가까스로 출전권을 따낸 한국 스켈레톤 대표팀의 이한신이 6일 러시아 소치 산악클러스터의 샌키 슬라이딩 센터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역대 최대인 71명 출전
금메달 최소 4개 목표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가 흑해 연안 러시아 휴양도시인 소치에서 막을 올린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현지시간으로 7일 오후 8시14분, 즉 2014년을 의미하는 20시14분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시작한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겨울 스포츠 축제를 모두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뜨겁고, 차갑게, 그대의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겨울 올림픽을 처음 개최하는 러시아는 소치올림픽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기 집권과 맞물려 자국의 달라진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로 삼고 있다. 대회 준비에만 무려 500억 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88개국이 참가하며, 참가 선수도 총 2873명으로 밴쿠버 대회의 기록을 넘어섰다.

철저히 보안에 부쳐진 채 준비 중인 개막식은 러시아 최초의 황제인 표트르 대제 시절의 전성기를 떠올리면서 러시아의 재도약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성화 점화자로는 푸틴 대통령의 재혼 상대로 거론된 바 있는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 출신 하원의원 알리나 카바예바가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출신의 동계스포츠 스타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선수단을 꾸린 한국은 스키·빙상·바이애슬론·봅슬레이·컬링·아이스하키·루지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노린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빙속 여제' 이상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김연아가 펼칠 전설의 피날레 무대에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오늘 특별호 발행

윤진숙 장관 전격 경질

정총리 대통령에 건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잠시 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사 사례로 경고를 했음에도 그런 언행이 있었다는 데 대해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적은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만에 낙마했다.

이로써 정 총리의 이날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역대 두번째로 기록됐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등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윤 장관은 5일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또 답변 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신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김민준기자 mjkim@

'공산품 물티슈' 유감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레저부 기자>

지난 5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UP'에 따르면 시판 중인 영유아 물티슈 23개 제품 중 6개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서 검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티슈 업체들은 앞다퉈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잊힐만하면 물티슈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물티슈가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용 물티슈는 용어만 있을 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고, 일본은 유아용 물티슈의 성분 기준을 만들어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다.

손·입 등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물티슈는 바로 씻어내는 샴푸·린스 등과는 달리 다시 헹궈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논란은 물티슈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하루빨리 영유아 물티슈에 대한 엄격한 성분 기준이 마련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생사 확인부터 가능해야"

박 대통령 "현재 이산가족 상봉 방식으론 한계… 국제기구와 협력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통일기반 구축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여 년간 헤어진 가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 확인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 양자 간 노력은 물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가길 바란다"며 "현재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웃음이 멋질 않아"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6일 서울 남산동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신청접수처에서 이근명 할아버지가 취재진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어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자신이 말한 '통일 대박'을 재차 언급하면서 통일 시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국제화의 큰 틀 안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것이 북한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추진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도 유엔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국정원 대선개입' 트윗글 78만건 축소

2차 공소장 변경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2600여 개 계정·121만 건의 트윗 및 리트윗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던 검찰이 위반 건수를 1100여 개 계정의 78만 건으로 축소했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재판부의 검증 요구 또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소장에서 제시한 트윗을 재검증해 다시 정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정리한 계정과 트윗 수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재판부 및 변호인과 상의해 공판기일을 통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기초연금안 마련' 여야정 한자리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김용판 '국정원 수사은폐' 무죄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쌓인 채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시장·군수도 예비군 동원훈련 받는다

대학 재학생 동원 보류기간 올해부터는 8학기로 제한

앞으로 사회지도층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예비군 8년차라서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전시 동원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전두환 삼남 재만씨 '한남동 빌딩' 180억에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이 180억원에 낙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 명의의 신원프라자 빌딩을 경매한 결과, 180억원에 낙찰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빌딩은 그동안 두 번 유찰됐으나 세 번째 경매에 부쳐져 낙찰됐다. 장녀 효선씨 명의의 안양시 임야 및 주택은 이번에도 유찰됐다. 캠코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추후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 장관들 불러놓고 '공천폐지 공방'

여야는 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 '위선적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약실천을 압박했다.

이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은 당장 책임자를 문책하기보다는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jhj@

2800억 희대의 '대출 사기'

KT 자회사 직원, 하나·농협·국민은행 등에서 받아내… 협력업체 공모 가능성

KT 자회사인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2800억원대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금융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 대출로 드러날 경우 하나·농협·국민은행과 저축은행권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자금 담당자는 이 회사 협력업체 3~4곳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나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운데 2800억원을 가져갔다. 협력업체들이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이 발행됐는데 이를 현금화하려고 SPC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매출채권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확인됐으며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사기 혐의 금액은 2800여억원으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총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이 800억원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 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면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혐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SPC 앞으로 나간 대출금을 발주업체 직원이 가져간 것을 이유로, 잠적한 KT ENS 직원이 납품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당한 은행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 대출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 및 내용 등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토록 조치하고 사고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한·중 소치선전 기원 선플 달아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한중 선플 사이버응원단' 출범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택시회사만 배 불린 요금인상

서울시, 기사 제보 받아보니 '사납금 과다인상' 최다

최근 택시요금은 인상됐지만 업체 이익만 늘었을 뿐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일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무기명으로 제보하는 웹사이트(traffic.seoul.go.kr/taxi)를 운영한 지 보름 만에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납입기준금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 지원 가이드라인 위반'(5건)과 '근로시간 축소'(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의 수혜자는 회사뿐이며 인상 후 운행 업무가 더 힘들어졌다"며 한목소리를 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시는 신고가 들어온 39개 업체 중 임단협 결과 미제출 업체를 포함한 25곳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 의심업체 15곳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구 합동특별점검을 한다.

기사들과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시에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17개 업체는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윤다혜기자 ydh@



"달걀·닭·오리 안전해요"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농촌지도자회·경기도생활개선회·품목별연구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수원역에서 시민들에게 달걀을 나눠주며 AI 발생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달걀과 닭, 오리의 안전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비극'…50대 양계농 스스로 목숨 끊어

토종닭 출하 못해 고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등으로 2~3주가량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한 50대 축산농이 이를 비관해 음독자살했다.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서 양계를 하던 봉모(53)씨는 6일 오전 5시께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제초제를 마셨다. 봉씨의 조카는 즉시 부안에 사는 봉씨의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누나와 매형이 봉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봉씨는 김제에서 토종닭 3만5000여 마리를 기르는 양계농으로, AI 발생 이후 출하를 하지 못해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닭은 보통 병아리를 농장으로 들인 뒤 60여 일이 지나면 출하해야 하지만 봉씨의 닭 중 일부는 100일을 넘긴 것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봉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이적단체 10여개 활동" 황교안 법무장관 밝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90여 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 개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관련 판결을 받아도 왜 조직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갖춰져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단체도 해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비틀스 미국 침공

1964년 2월7일 낮 1시30분 미국 케네디공항에서 영국의 4인조 그룹 비틀스가 나타나자 공항에 모인 3000여 명의 소녀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틀 후 비틀스가 출연한 TV 프로그램 '에드 설리번쇼'는 7300만 명의 미국인이 시청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영국 가수는 미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징크스를 깨며 'I Want To Hold Your Hand'로 전미 히트 차트 1위에 오른 비틀즈는 두 달 후엔 빌보드 차트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석권하고 만다. 그들은 1970년 해체하기 전까지 9년간 211곡을 발표했고 앨범 판매량은 20세기 최대 기록인 1억6000만장 이었다.



동대문구청 민원실 새 단장

서울시 동대문구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1층 종합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1층 종합민원실의 의자를 안정되고 차분한 분위기의 그린톤 제품으로 교체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우선처리 창구'를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점검

서울시 중랑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주변 도로·교통·하수시설물 등의 전반적인 훼손 및 파손 여부 ▲안전성 및 위험 요소 발생 여부 ▲청결 및 기타 주민 불편사항 등이다.

'이브 프로젝트전' 21일까지

서울시 송파구립 예송미술관은 오는 21일까지 김동현 작가의 '오토포이 박사의 연구실-이브 프로젝트(EVE PROJECT)' 전시회를 연다.

겨울방학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작가가 만들어낸 '오토포이 박사'라는 가상 인물의 연구실을 보여준다.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료는 무료다.



안녕 못해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 고려대·동국대 학생들이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가오는 개강, 대학생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행사를 열고 '허울뿐인 등록금심의위원회·사학재단의 학내자치 탄압·불도저식 학과 구조조정'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제설제 알고보니 불량소금

중국산 등 8만여t 수입해 관공서에 납품…싼 대신 환경오염 우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제로 납품한 업자들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등 14명을 적발했다.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소금 수입·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제설제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소금 8만8000여t을 수입, 모두 38차례에 걸쳐 관공서 등에 납품해 64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전국 지사 22곳과 서울·수원·의정부·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됐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뿌려진 제설용 소금의 80% 이상을 공급한 업체들이다.

중국산 소금의 경우 토사 등 물불용분 함유량이 기준치(도공 1% 이하·지자체 1.5% 이하)의 8~10배를 훌쩍 넘는 12% 정도인 데다 질소성 유기물이 함유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이 중국산 소금을 정상 소금보다 t당 10달러 저렴한 57.5달러에 4500t을 수입해 서울·수원·의정부시 등에 납품했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유부녀인 동료와 바람피운 남자 상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남편이 바람을 피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하고, 고소와 함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인과 상대 남자에게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는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부인이 갈등을 겪는 등 자신 때문이 아닌 A씨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부부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상호 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논의가 있었지만 B씨가 부정 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A씨와 아내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B씨의 부정 행위는 혼인 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 면제 효과가 B씨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김두탁기자



'불법 성산업' 돋보기 감시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4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 발대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왼쪽)과 감시단원들이 돋보기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있다. 감시단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내 음란 댓글을 확인하고 거리 위 불법 전단을 신고하는 활동을 한다. /연합뉴스

의무경찰도 현역병처럼 강등·휴가제한 받는다

앞으로 의무경찰도 현역병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해 의무경찰의 징계 내용을 군부대에 입대한 현역병이 받는 징계와 같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투경찰제도가 폐지돼 지난해 9월 마지막 전경이 제대하면서 관련법을 수정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현행법에서 전·의경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창 및 근신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의경에 대한 징계는 영창과 근신으로 국한됐다. 현역병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 4종류의 징계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mjkim@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metro Brazil



브라질리아 공항 확장 마무리단계

브라질리아 국제공항 확장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이 공사는 5월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민간기업 참여로 시작된 공사에는 28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9억 헤알(약 3980억원)이 소요됐다. 확장 공사는 국내선인 피엘 수르와 국제선인 피엘 노르치두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을 주축으로 엔지니어와 관리관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

metro Russia



초등학교 입학원서 내려 밤샘대기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등록을 위해 원서 제출일 며칠 전부터 밤을 새우며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눈길을 끌었다. 입학원서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센터 또는 페테르부르크 국가서비스 사이트(gu.spb.ru)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열성 학부모들은 원서를 넣기 위해 학교 앞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원 초과설' 루머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구순 노인 '영화같은 사랑가'

함께 입원한 부인에게 "퇴원해서 100살까지 삽시다" 매일 '연애편지 간호'… 중국인들 감동



평생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영화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중국 항저우시에 사는 노부부의 한결같은 사랑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궈자오밍(90·**사진 왼쪽**)은 매일 '연애편지' 한 통씩을 써서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 쑨지잉(87·**오른쪽**)에게 읽어준다. 남편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부부의 건강상태는 모두 좋지 않아 2011년부터 저장성 제1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다.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할머니는 노인성 치매와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할머니의 기관지염 증세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의 병실로 면회를 가고 있다. 면회 시간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3동에서 1동으로 간다. 휘청휘청 거리며 신발을 갈아신고 가운을 갈아 입고 할머니 침대맡으로 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어서 그들의 '공식 행사'가 시작된다. "체조 시작! 고개를 위로 하나 둘 셋!" 할아버지의 구령에 맞춰 할머니가 몸을 움직인다. 체조가 끝나면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다. 할아버지는 한 자 한 자 편지를 읽어나간다.

지팡이 위 할아버지의 손은 떨리지만 빨간 편지지 위 글자는 또박또박 쓰여있다. 편지는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7일자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사랑하는 샤오잉. 병은 반드시 좋아질 거요. 힘내서 이겨냅시다. 우리 건강하게 100살까지 삽시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궈자오밍으로부터.'

할아버지는 "아내가 중환자실로 들어가 산소호흡기를 낀 후로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해 편지를 써서 아내와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안마를 해주며 할머니의 이름을 부른다. 퉁지대학 동문인 두 사람은 옛 친구들의 이름과 추억의 장소를 떠올린다.

두 사람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는 병원에서 유명하다. 옆 병실의 한 모씨는 "두 사람은 항상 손을 잡고 같이 다닌다. 궈씨가 한 소절 읊으면 쑨씨가 다음 소절을 읊으며 같이 시를 외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잉웨화는 "할아버지는 정신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 '바보'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다"면서 노부부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하다고 전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Sweden



아홉살 때 밀입국 이란 출신의 미녀 기구했던 삶 화제

스웨덴 최대의 음악 축제로 꼽히는 멜로디페스티발렌의 한 여성 참가자의 기구한 사연이 화제다. 주인공은 이란 출신의 마한 모인(**사진**).

부모를 따라 남동생과 함께 이란에서 스웨덴으로 밀입국한 그는 오랜 세월을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입국이었기 때문.

밀입국 브로커를 통해 스웨덴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마한의 나이는 겨우 아홉 살이었다. 그는 남자아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짧게 깎았다. 스웨덴에는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고. 하지만 그 기대는 곧바로 산산조각 났다.

"몇 개월 뒤에 이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가지 이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돌아가거나 숨거나."

교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의 도움으로 마한의 가족들은 9개월 동안 몸을 숨겼다. 그 기간 마한과 그의 남동생은 학교 다니는 것은 생각지도 못 했다.

마한은 "우리가 살던 곳은 학교 옆이었다. 나와 내 남동생은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경하며 학교에 다니길 바라곤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게 발각됐고 추방되기 직전에 임시로 머무는 X-휘셋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좌절하고 있던 마한의 가족에게 희망이 찾아왔다. 인권 단체와 언론을 통해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퍼지면서 마한과 그의 가족은 스웨덴에서 머물러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마한은 "과거의 생활은 나를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믿게 됐다"고 밝혔다.

/안넬리 산드베리 기자
정리=김동재 인턴기자

‘국민과자’ 새우깡·양파링도 가격 오른다

국민 대표 과자류인 새우깡의 가격이 1년6개월 만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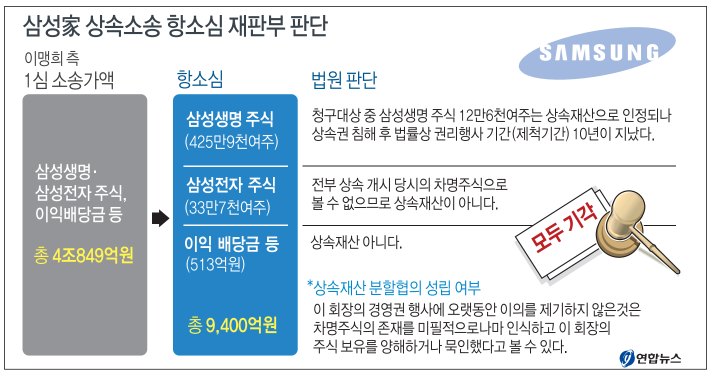
농심은 6일 새우깡을 비롯한 스낵류와 즉석밥·웰치주스 등에 대해 평균 7.5% 인상된 가격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포스틱·양파링 등은 2년10개월 만에, 새우깡과 수미칩은 1년6개월 만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며, 특히 즉석밥은 2002년 출시 이후 12년 만에 첫 인상이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새우깡(90g)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오르게 됐다. 1200원이었던 자갈치(90g)와 양파링(84g) 등은 각각 1300원(8.3%)으로 올랐다. 즉석밥은 평균 9.9% 올랐으며, 웰치주스는 8.2%, 웰치소다 5.2% 소비자 가격이 상승된다. /정영일기자 prms@

이건희 회장 상속·경영권 ‘유효’

2년간의 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서도 승소…이맹희씨 측 상고 가능성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재산 문제를 떠나 삼성가의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맹희 측이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 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 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며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삼성은 그간 이 사건의 본질이 돈 문제가 아닌 원칙과 경영 승계에 대한 정통성 문제라고 주장해왔다.이에 따라 이맹희씨 측의 조정 요청에도 정통성을 훼손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도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때 합당한 결과”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맹희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 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맹희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에 패소한 이맹희 측은 거액의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고 시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은 “2년간 끌어온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불투명한 미래 경영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후에도 벅차

10년 후에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선진국 문턱을 넘기 버거울 것이란 우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8~26일 경제전문가 7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2.5%가 10년 후(2023년) 예상 1인당 GNI에 대해 ‘3만~3만5000달러’라고 답변했다고 6일 밝혔다.

‘3만5000~4만 달러’라는 응답은 19.4%, ‘2만5000~3만 달러’ 18.1%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10년 후 경제력을 묻는 질문에는 59.7%가 현재(G15) 경제력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15)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등 대외 요인과 투자 부진·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등 대내적 요인으로 경제대국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국명기자 kmlee@



‘명품 할인’에 몰려든 인파 6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해외명품대전’에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행사장이 붐비고 있다.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해외명품대전에는 에트로, 멀버리, 아르마니 등 1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600억원 규모의 물량이 선보인다. /연합뉴스

비누 한장만 잘 써도 ‘살림 거품’ 감소

짠순이 경제학

은은하고 달콤한 향으로 자태를 뽐내는 비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품이다. 그래선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은 편이다. 조금이라도 아낄 수는 없을까.

아이가 있는 집에선 비누가 빨리 닳는다. 이럴 때는 비눗갑 위에 스펀지를 먼저 깔고 비누를 놓으면 좀 더 아껴 쓸 수 있다. 스펀지가 습기를 쫙~ 빨아들여서 비누가 잘 녹지 않고, 스펀지에 비누가 적당히 묻어서 목욕할 때 쓰면 좋다. 또 비누 바닥 면에 은박지를 붙여두면 물기에도 쉽게 녹지 않아 경제적이다.

조각 난 비누는 딱딱하고 쓰기도 불편하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 얇은 스펀지를 두 장 구해서 한 쪽만 남기고 꿰매 주머니를 만든다. 여기에 비누 조각을 넣고 목욕할 때 쓰면 편리하다.

얼마 남지 않은 ‘치약’을 힘들게 짜내려다 포기한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일명 ‘치약 절약 짜개’를 이용하면 손쉽게 치약을 아낄 수 있다. 치약 끝부분에 알뜰 치약짜개를 끼우고 위로 밀면 내용물이 말끔히 정돈된다. 치약뿐만 아니라 튜브형 용기로 된 화장품, 연고, 접착제 등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약을 반으로 뚝 잘라서 끝까지 사용한다.

깐깐한 짠순이 주부들은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아껴야 잘 산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다. /김민지기자 minji@

market index <6일>

코스피	1907.89	(+16.57)
코스닥	509.87	(+4.25)
금리(국고채 3년)	2.85	(−0.01)
환율(원·달러)	1078.50	(+0.50)

뉴스&뉴스

공산품 19개 위험해 ‘리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전기방석과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 중 19개 제품을 리콜 처리했다. 기표원 조사 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명령했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유주영기자 boa@

서비스업 등록규제 심하네

● 서비스산업에 대한 등록 규제 수가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을 보면 서비스산업의 등록 규제 수는 제조업의 약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7700개의 등록 규제 중 사업자 공통 규제를 포함하면 제조업은 1073개, 서비스업은 4336개다. 공통 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다. /김태균기자

한국인 은퇴준비지수 56점

● 한국인의 종합은퇴준비지수가 100점 만점에 56.7점으로 ‘주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782명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활동, 관계 등 4가지 영역의 은퇴 준비 정도를 조사한 후 각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종합은퇴준비지수’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은 통계가 산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응답자별로 보면 ‘주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의 6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양호’에 해당하는 가구가 27%, ‘위험’에 해당하는 가구는 11%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은퇴 준비 수준이 낮았다. /박정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전자, 최고급형 노트북 '아티브 북9' 시리즈 출시 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딜라이트숍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프리미엄 노트북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한 '아티브 북9 2014 에디션'과 '아티브 북9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동양증권, 대만 품으로?

10년전 'LG증권 매물' 놓친 유안타증권 인수 유력
현대증권, 산은PE에 넘어가…증권사 M&A 급물살

동양증권과 현대증권의 매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증권가 인수·합병(M&A)이 급물살을 탔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대만 유안타증권이다. 지난 2004년 LG증권 인수전에서 승기를 빼앗기면서 접은 한국 진출의 꿈을 10년 만에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현대증권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사모펀드본부(이하 산은PE)로 넘어갔다. 산은PE는 실사 후 현대그룹에 인수 자금을 건넨 뒤 곧바로 재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동양증권 측은 "지난 4일 마감된 인수의향서(LOI) 접수에서 대만 유안타증권이 단독으로 L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등 3곳이 마감 이후에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추가 접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유안타증권 등 인수 후보를 대상으로 실사를 거친 뒤 오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월쯤 동양증권 매각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대증권 등 금융 계열사 3곳(현대자산운용·현대저축은행)과 부동산 자산 등을 매물로 내놓은 현대그룹은 금융 계열 3개사만 먼저 특수목적회사(SPC)인 산은PE에 넘긴다고 결정했다.

매각 주체에서 현대그룹이 빠지고 산은PE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현대증권 매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매물이 워낙 많이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수를 추진할 여력이 많지 않다"며 "현대증권의 경우에도 강력한 매각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우리투자증권 매각전에서 승기를 잡은 NH농협금융지주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이날 수천억원대의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불거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지주 내부의 문제 해결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증권사 인수 절차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증권사는 10여 곳이다. 매각이 미뤄진 KDB대우증권을 포함해 중소형사인 이트레이드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이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스팸차단 '두 낫 콜' 하세요

TM문자 등 거부 서비스
해당 사이트 무료 등록
금융권 전반 확대 검토

금융기관과 포털 등 기업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두낫콜(Do-Not-Call)' 서비스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인터넷 등록 절차를 마치면 스팸 전화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 웹사이트 접속한 뒤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수신 거부를 할 휴대폰과 집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등록 시스템에 월 1차례 이상 접속해 자신이 가진 판매 대상 소비자 명부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 중 두낫콜에 등록하지 않은 명부에만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할 수 있다. 서비스에 등록했는데도 스팸 전화가 오면 고객들은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 차단 기능은 원치 않는 개별 전화번호를 차단 하는데 그치지만 두낫콜 서비스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 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전화영업(TM)부문에 적용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전 보험사 내지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정원기자



강남 연립주택도 '미친 전세' 6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권의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60.2%를 찍어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0%선을 돌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 공기업들 해외사업 매각

가스공사 등 부채 줄이려
자원개발 지분 정리 계획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사업 중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도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2017년까지 핵심 자원 개발사업 지분 매각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지난달 말 기재부에 제출했다.

가스공사는 2011년 개발·운영권을 획득한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생산 사업의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매각 대금 추산액은 3090억원이다.

석유공사는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보유한 광구의 투자 지분을 판다는 매각 전략을 내놓았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우라늄 및 유연탄 광산의 출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분 100%를 보유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의 지분 49%와 캐나다 우라늄 개발업체인 데니슨 마인스사의 출자 지분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주영기자 boa@

판교~광교~동탄 '트라이 밸리'의 봄

경기 GTX 사업 예산 확정에
세곳 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인근 부동산 반사이익 기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화성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경기판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GTX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데 이어, 테크노밸리 개발까지 추가돼 경부 라인의 몸값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가 판교~광교~동탄을 연계해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첨단산업벨트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장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첨단산업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혁신 공동체를 확대해 첨단 및 연구·개발(R&D) 관련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는 물론 국제적인 첨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는 대규모 R&D 기업 63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13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 광교테크노밸리 역시 첨단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관련 5개 공공연구기관과 217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매출액이 3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렀던 신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당장 전셋값부터 치솟고 있다. 직장을 찾아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는 수요자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판교의 경우 작년 말 기준 3.3㎡당 전세가는 판교동 1367만원, 삼평동, 1464만원, 운중동 1277만원, 백현동 1446만원으로 집계되며, 1년 사이 20% 이상 올랐다. 수도권 전셋값 오름폭 13.34%를 크게 웃돈 수치다.

광교 역시 최근 2년간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히며, 3.3㎡당 530만원에서 846만원으로 무려 59.6%가 상승했다. 동탄의 경우 1신도시 전세가가 2신도시 분양가와 맞먹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동탄의 경우 1신도시의 전셋값이 오르면서 2신도시 분양까지 잘 이뤄지는 등 반사이익을 톡톡히 얻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웃기 힘든’ 포털 3사 성적표

네이버 당기 순이익 감소
네이트는 9분기연속 적자
다음 영업순익 감소 전망

국내 포털 시장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업계 1위 네이버와 3위 네이트는 6일 나란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당기순이익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4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업계 2위 다음도 매출은 약 5% 증가해도 영업순이익은 1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가는 다음의 매출이 1360억~1390억원, 영업이익 170억~19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 매출 6411억원, 영업이익 1543억원, 당기순이익 46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전 세계 이용자 3억 명 돌파 인기 속에 전년 동기 대비 232.2% 성장한 1369억원 매출을 보였다.

다만 네이버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4분기 1266억원, 지난해 3분기 762억원, 지난해 4분기 464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다. 감소율은 전년 대비 63.4%, 전분기 대비 39.2%다. 이는 라인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한편 SK컴즈는 9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SK컴즈는 지난해 4분기 매출 275억원, 영업손실 177억원, 순손실 26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13.9% 감소한 것으로 싸이월드 실적 부진과 카카오톡 PC로 인한 네이트온 점유율 하락의 타격이 컸다.

김문수 SK컴즈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재창업 수준의 대대적인 사업 조정을 벌였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빠른 수익성 개선은 물론 네이트의 모바일 입지 강화 및 싸이메라의 글로벌 시장 성과 창출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헬로tv스마트는 ‘볼매tv’

CJ헬로비전, ‘스마트 녹화’ 등 업그레이드 기능 공개

"올해 신규 가입자 절반은 헬로tv스마트 가입자로 유치할 것이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5일 오후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헬로tv스마트는 TV 본연의 시청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다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했다"며 "특히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 녹화(PVR)' 서비스는 케이블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은 외장하드 방식을 이용해 PV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영국 CJ헬로비전 마케팅실장은 "외장하드 형태로 PVR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용량이 부족하더라도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 타사와 달리 녹화를 하더라도 풀HD급 화질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며 "이 밖에도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이용한 채널 및 주문형비디오(VOD)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청 채널', 가족들이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모바일에서 TV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앞세워 스마트 TV 이용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이어 "차기 버전도 내년쯤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헬로비전은 헬로tv스마트에 4분할 멀티뷰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멀티뷰 기능은 CJ헬로비전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채널들 중 4개 채널을 선택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타사와 달리 직접 이용자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딸기 가격이 달콤해…지난해보다 10% 인하 이달 들어 딸기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하면서 유통과 호텔 업계가 잇따라 딸기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설향 딸기의 도매 가격(2kg 기준)은 지난해(1만7051원)보다 10.4% 떨어진 1만5272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1월 수입차 판매 ‘BMW 1위’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1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를 집계한 결과 BMW가 업체별, 단일 모델별 판매 1위를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 3408대를 비롯해 메르세데스 벤츠 2773대, 폭스바겐 2700대, 아우디 2137대 등 독일 업체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단일 모델로는 BMW 520d(809대)가 1위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650대), 메르세데스 벤츠 E 220 CDI(576대)가 2~3위를 차지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현대그룹플러스’ 주식형펀드 실적 굿!

현재 수탁고 2260억 돌파
포트폴리오 운용 안정성
지난해 증시 부진 속에도
코스피지수 대비 고수익률



현대증권은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진화하는 범현대그룹에 투자하는 '현대 현대그룹플러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가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돋보이는 운용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9월 14일 운용을 시작한 이 펀드는 현대그룹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바탕으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현대증권은 "대부분의 금융사 판매 리스트에 오르면서 현재 수탁고는 2260억 여원을 돌파했다"며 "지난해 증시 부진 속에서도 코스피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현대증권은 범현대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 펀드의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만도 등 자동차 부문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산업 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증권은 이 펀드의 장점으로 범현대그룹 기업의 다양한 업종에 따른 분산 투자 효과를 꼽았다.

현대증권 측은 "한두 가지 업종에 치우친 타 그룹주 펀드와 달리 업종 분산이 뛰어나다"며 "자동차(현대·기아차), 소재·부품(모비스·만도), 철강·금속(현대제철), 조선(현대중공업), 금융 및 보험(현대증권·현대해상), 도소매(현대백화점)와 반도체(하이닉스), 건설(현대건설) 등 다양한 업종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고루 포진해 포트폴리오의 운용 안정성이 높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전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im1@

캐리어에어컨 "2년 뒤 매출 1조"

강성희 회장 전략 발표회 "올해 목표 6000억" 강조



강성희 회장이 6일 '2014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

강성희 캐리어에어컨 회장은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캐리어에어컨 2014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가정용 에어컨을 포함한 빌딩·산업 공조 시스템 강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올해 매출 목표 6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캐리어에어컨은 지난해 매출 41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약 46%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

강 회장은 "2014년은 제2의 창업 원년"이라며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형 신제품 출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산업용 공조 시스템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정용 제품 출시 ▲사회공헌 활동 지속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빌딩 에너지 운전 효율을 최대 50%까지 개선하는 어드밴텍 시스템, 67%까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 시스템, 49%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실현한 인버터 냉동·냉장 쇼케이스와 같이 에너지 절약 신기술을 장착한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 180개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캐리어의 강점을 앞세워 철도 및 고속철 에어컨, 차량용 냉동기로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에 합작법인을 추진하는 한편 시스템 에어컨, 차량용 냉동기 등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용 에어컨 시장뿐 아니라 산업용 공조 시스템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가정용 에어컨 분야에서는 최근 출시한 '립스틱 플러스'와 같이 독창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승부하겠다는 계획이다. 립스틱 플러스는 초강력 20m 허리케인 냉방 기술과 초미세먼지를 99.99% 제거하는 공기 청정 기술, 스마트 감성 컨트롤 시스템 등을 탑재한 제품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구직 한파에 '자격증 열풍'

'컴퓨터 활용능력' 등 3대 취업자격증 응시인원 일년새 12% 늘어

자격증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데다 중장년 취업 준비생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대 취업 자격증이라 불리는 '컴퓨터활용능력' '무역영어' '한자' 등 자격평가시험의 지난해 응시 인원이 67만8000명으로 전년(60만5000명) 대비 12.1%가량 증가했다.

대한상의 측은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며 기본적인 업무 자질은 자격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취업 준비생의 생각"이라며 "기업에서도 자격 평가 내용이 기업 실무와 밀접하게 연계돼 자격 소지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공무원 임용·승진 시 가산점을 적용받거나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 전문대학 특별전형 응시 기회 부여 등의 특전도 응시 인원 증가의 한 이유로 분석된다.

상의는 또 "최근 은퇴자나 이직 준비생에게도 자격증은 기본 취직 스펙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의 상시 검정 접수 인원의 평균 연령은 2008년에만 해도 24.6세였으나 지난해 26.3세까지 올라왔다.

대한상의는 올해도 컴퓨터활용능력은 연간 3번(2·6·9월), 한자는 4번(3·5·9·11월), 무역영어는 3번(5·7·10월)에 걸쳐 정기 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컴퓨터활용능력과 한자, 워드프로세서'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상설검정장(49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시에 시험을 볼 수 있다.

박종갑 자격평가사업단장은 "자격증 인기가 시들었다는 우려가 있지만 취업 시장이 얼어붙을수록 오히려 자격증은 중요하다"며 "3대 취업 자격 종목 이외에 스마트앱마스터 등 신규 자격 개발을 통해 산업계와 구직자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Btv 모바일 고객에 LTE 데이터 무료 SK텔레콤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맞아 자사 고객 중 'Btv 모바일' 월 정액 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3일까지 LTE 데이터 통화료를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한강신도시 최초 오피스텔 '베네치아'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297-1번지 일대 한강신도시 최초의 오피스텔 '베네치아'가 분양 중이다.

전체 228실 규모로 전용면적 25.85~26.70㎡로 구성됐다. 3.3㎡당 400만원대의 거품을 뺀 분양가가 책정됐으며, 전체 분양가가 7500만원 수준이다. 50% 대출 시 실투자금은 3500만원 정도다.

1층 하나로마트, 2층 병·의원 등의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으며, 준공 후 분양이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최초 분양자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문의: 031)981-6700

/박선옥기자 pso9820@

의료통역사 국가시험 특강

한국의료관광전문가교육원이 의료통역사 국가자격시험 대비 특강을 마련했다.

1차 필기 대비 특강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15일 개강한다. 2차 실기 대비 특강은 2개월 과정으로 각 선택 언어(영어·일어·중국어)로 병원 내 실제 사용되는 실무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실습이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www.meditour.or.kr)나 전화(02-6273-8594)로 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신한금융 서포터즈 모집중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홍보를 담당할 대학생 서포터즈 7기를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 7기는 총 32명의 인원을 모집한다.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들은 3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12주간 신한금융투자의 상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홍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기수부터 새로 도입된 '명예직원' 프로그램은 서포터즈에게 부서별 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생(4학년 1학기 재학생 또는 휴학생에 한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민지기자

무선 접속 외장하드 'WD 마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다국적 기업 웨스턴디지털(WD)이 무선 접속이 가능한 웹하드 형식 외장하드 'WD 마이 클라우드' 시리즈를 선보였다.

WD는 6일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 개인 및 가정용 클라우드 솔루션 'WD 마이 클라우드'와 'WD 마이 클라우드 EX4'의 국내 출시를 알렸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PC 및 모바일 기기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관하면서 모든 기기와 연동하게 한다. 인터넷 연결만 되면 최소 2테라바이트(TB)에서 16TB까지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직장인 연봉 5.7% 오른다

371개 기업 설문 결과

올 직장인 연봉이 평균 5.7%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71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직원 연봉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43.4%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미정'은 26.7%, '동결할 계획'은 26.4%였으며 '삭감할 계획'은 3.5%에 불과했다.

연봉 인상 계획은 밝힌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절반이 넘는 58.3%로 나타났고 중견기업(51.5%), 중소기업(42%) 순이었다.

인상 수준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봉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7.1%나 됐지만 높아질 것(31.7%)이란 대답이 낮아질 것(8.1%)보다 4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예상하는 올해 연봉 인상률은 평균 5.7%로 나타났다.

직급별 평균 인상률은 사원급(6.3%), 대리급(6.1%), 과장급(5.8%), 부장급(5.2%), 임원급(4.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봉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는 기업의 전년 매출·실적(28.3%)이 1위를 차지했다. 개인 성과·실적(24.5%)이 뒤를 이었다. 회사 재정 상태(13.2%), 개인 역량(12.1%), 개인 근무 태도(4%), 물가 상승률(4%), 동종업계 현황(4%) 등을 반영한다는 대답도 있었다.

/이국명기자 kmlee@

“에이즈 완치 어렵지만 불치병 아냐”

내달 출시 앞둔 HIV 치료제 ‘스트리빌드’ 간담회

“전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매직 존슨이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자라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20년 넘게 살아있다. 완치는 어렵지만 일반 대중이 알고 있는 것처럼 HIV 감염이 불치병은 아니다.”

반준우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전무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HIV 치료제 ‘스트리빌드’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HIV에 감염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에이즈는 HIV 감염 후 몸 면역기능이 떨어져 나타나는 ‘면역결핍증후군’이라는 병명이다”고 설명했다.

에이즈 발병은 HIV 감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세포인 CD4 양성 T세포 수, 치료 여부, 영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HIV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수치를 잘 관리하면 에이즈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어 그는 “HIV RNA 바이러스는 신체 내 세포에 이어 핵까지 침투해 합쳐지는 특징이 있어 완치가 어렵다. HIV RNA 바이러스를 절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HIV 치료제가 추구하는 목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내 HIV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자 중 2000명이 사망해 현재 8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HIV 환자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 단일정 복합 HIV 치료제 스트리빌드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약물은 ▲엘비테그라비르 ▲코비시스타트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레이트 등 4가지 성분을 한 알에 담아 복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지난해 2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의 HIV-1 감염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서승희기자 ssh814@metroseoul.co.kr



6일 열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스트리빌드’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반준우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전무가 HIV 감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제공


“정월 대보름 오곡찰밥 맛보세요” 삼립식품의 떡 전문 프랜차이즈 빚은이 정월 대보름을 앞둔 6일 서울 중구 무교점에서 오곡찰밥, 약식, 밤가득설기 등 신제품 17종을 선보였다.
/삼립식품 제공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천하’ 계속된다

시크릿 노트

시장 점유율 절반 넘어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중 20~30대 환자가 절반이고 남성형 탈모가 대부분이다.

젊은층 남성 탈모 환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탈모 치료제·샴푸·가발 시장이 거대해졌는데 그중 독보적인 존재가 하나 있다.

바로 한국MSD의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다.

프로페시아는 ‘피나스테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보통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복제약들이 시장에 뛰어든다.

이럴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은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특허가 끝난 후 매출이 크게 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만 봐도 뻔히 예상되는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프로페시아는 달랐다. 2000년 출시된 후 2006년 특허가 완료됐지만 여전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500억원 정도의 탈모 치료제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280억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약 400억원의 피나스테리드 계열 시장에서는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만큼 인기가 높다.

이웃 나라 일본의 피부과학회에서는 남성형 탈모 치료에 있어서 유일하게 강력 권장 A등급을 받기도 했다.

탈모가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프로페시아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이유다. /황재용기자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법 위반 가능성”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법률 자문 받아… “제도 원점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추진하는 의약품의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6일 KRPIA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 수준에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 제약사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약사가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 역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KRPIA 관계자는 “환자 및 시민단체,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이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 것이 의문이다”며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RPIA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아스트라제네카 BMS 항당뇨제 사업 인수

아스트라제네카가 BMS(Bristol-Myers Squibb)의 항당뇨제 사업을 인수해 당뇨병 치료제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BMS와의 항당뇨제 제휴 사업에서 BMS가 보유했던 지분 전체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항당뇨제 부문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핵심 전략 분야이자 성장 회복에 중요한 플랫폼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당뇨병 치료제 ▲온글라이자 ▲콤비글라이즈 ▲포시가 ▲바이에타 ▲바이듀리언을 중심으로 항당뇨제 부문에 더욱 집중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당뇨병 치료제 사업의 지적재산, 신약 개발, 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됐으며 BMS에 초기 인수 대금으로 27억 달러를 지불했다.

/황재용기자

LG생명과학 ‘이브아르’ 홍보

LG생명과학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미용성형학회(IMCAS)에 참가해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제품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IMCAS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티에이징 학회로 전 세계 성형 및 피부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LG생명과학은 국내 의사들과 함께 이브아르를 이용한 라이브 시술을 시연하고 브랜드 부스를 운영해 이브아르를 소개했다. /황재용기자



RPG '몬스터 길들이기' 엑소와 함께 타임어택

엑소와 함께 모바일게임을 즐긴다.

CJ E&M 넷마블의 모바일 캐주얼 액션 RPG '몬스터 길들이기 for Kakao'는 인기 아이돌 엑소와 함께하는 타임어택 이벤트를 연다.

'몬스터 길들이기'는 280여 종의 개성 넘치는 몬스터 수집과 성장, 모험 지역 등 다양한 RPG 요소를 자동 전투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이다.

엑소는 '늑대와 미녀' '으르렁'의 연속 히트로 정규 1집 판매량 100만장 돌파라는 진기록을 수립하고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2013 MAMA' '제28회 골든디스크' 등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대상을 석권한 최고 인기 그룹으로 이번 이벤트에 20일까지 깜짝 등장한다. /전효진기자

'아이러브 커피' 업데이트

파티게임즈는 6일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카페 경영 게임 '아이러브커피'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총 4가지 테마로 진행되며 생두 선물하기로 유저들이 소통하고 밸런타인데이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이벤트 생두 선물 ▲이벤트 원두·사이드 메뉴 추가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퀘스트 추가 ▲러블리 테마 레벨 제한 해제다.

우선 파티게임즈는 아이러브커피에 '러브러브 아라비카 버본' 선물하기를 추가했다. 유저는 로스팅 재료(생두)인 러브러브 아라비카 버본을 하루 한 번 아이러브커피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

특히 러브러브 아라비카 버본은 기존 원두들보다 로스팅 효율이 좋아 많은 친구들에게 매일 생두를 선물하고 다량의 원두를 수확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전효진기자



이름처럼 간절한 대작 '블레스'

네오위즈 400억 온라인 신작 20일 첫 서비스
'피파2' '크로스파이어'의 악재 털어줄 지 주목

네오위즈게임즈의 미래가 오는 20~23일 나흘 동안 결정된다. 수년간 400억원가량을 들여 개발해온 MMORPG '블레스'를 이 기간 처음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빅 4로 분류됐던 네오위즈게임즈는 '피파온라인2' 서비스가 막히고 중국 최고 인기 게임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악재로 기세가 많이 사그라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거액을 들여 개발한 블레스마저 '악재' 리스트에 오를 경우 기업의 존폐 위기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6일 블레스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플레이 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공개하고 20~23일 1차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계의 시선은 블레스가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영향에 고정됐다. 먼저 이 게임이 수렁에 빠진 네오위즈게임즈를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현실적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배경과 거대 괴물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리니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기존 MMORPG와 비슷한 느낌이다.

즉 획기적인 매력이 없다면 기존에 플레이하던 게임에 안착하려는 성향이 강한 상품 특성상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에 이미 수출되는 등 초기 해외 반응이 나쁘지 않은 데다 대작 온라인게임 개발 노하우가 많은 엔지니어들이 투입된 만큼 반전을 이룰 수도 있다.

블레스는 향후 온라인게임의 행보를 점칠 수 있는 가늠자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절대 다수의 이용자들이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상황에서 새 블록버스터 온라인게임이 얼마나 시장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PC를 이용해야만 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마니아의 취미로 전락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 플레이가 모바일게임의 위력 앞에서 어떤 결말을 얻을까?

최관호 네오위즈블레스 스튜디오 대표는 "'그 많던 RPG 유저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다. 기존 RPG에서 주지 못했던 기쁨을 블레스가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올림픽 짝짝이 '에오스' 유혹

23일까지 '응원 이벤트'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면 혜택이 풍성하다.

NHN블랙픽이 서비스하고 엔비어스가 개발한 정통 MMORPG '에오스'가 23일까지 겨울 스포츠 응원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 기간 매일 에오스에 접속해 1시간 이상 플레이하면 자동으로 출석 도장이 생성되며 지정된 스포츠 종목 경기일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 중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젠하이저 헤드셋, 코엑스 아쿠아리움 가족입장권, 외식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또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금메달을 4개 이상 획득할 경우 기간 중 7일 이상 접속한 모든 분들에게 신규 코스튬 '트레이닝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다.

PC방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한게임 가맹 PC방에서 에오스를 즐기면 PC방 버프 효과가 발생하는데 접속과 동시에 에너지가 완전 충전되고 스킬 사용 시에도 에너지 소모가 없으며 최대 생명력과 공격력도 상승한다.

이외에도 레벨에 상관없이 PC방에서 1시간만 플레이하면 알짜 아이템이 담긴 '아르카나의 선물'이 지급되고 만레벨 이용자는 금괴와 일반 보석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붉은 기사단 모여"

리니지 '공성전' 업데이트

리니지의 꽃 '공성전'이 더욱 화려해진다.

엔씨소프트의 스테디셀러 MMORPG '리니지'가 NPC(Non-player Character·플레이어가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 참여형 공성전 '붉은 기사단의 진격'을 5일 업데이트했다.

새로 업데이트된 공성전은 기존 고객 간의 대결 방식에서 탈피해 리니지의 전설적 영웅인 데포로쥬의 수호성 NPC 5인방이 '붉은 기사단'과 함께 등장해 공성전을 펼친다.

붉은 기사단의 일원으로 공성전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공성전 시작 30분 전부터 NPC '데포로쥬'와 대화해 붉은 기사단에 가입할 수 있다.

공성전이 시작되면 기사단에 가입한 고객은 수호성 NPC와 함께 공성전을 진행하게 되며, 공성전에서 승리하면 게임머니와 포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G사업1실 이성구 실장은 "리니지 대표 콘텐츠 공성전은 지난해 10월 '혁명전쟁'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고 있고 다수의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성전에서 많은 고객이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수술 없이 간단히 끝낸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은 도수 운동 치료…말기 디스크 질환은 10분정도 고주파로 끝!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받아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을 찾아 치료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고 최근 엉덩이 통증과 다리 땅김이 심해져 유명 척추병원들을 방문해 여러 차례 꼬리뼈 신경 성형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 비싸기만 하고 효과가 일시적이라 통증은 계속됐고 결국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유명 연예인들 및 스포츠 스타들이 치료받은 적이 있는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상욱 원장은 일자 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요추 MRI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B씨는 방문 당일 요추 신경치료 주사로 치료받았으며 이후 병원의 척추도수운동 치료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치료를 마친 B씨는 현재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에게 맞는 치료 근본적인 치료 시행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오래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환자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 요법, 침 치료 등만 받아 질환이 심해지기도 한다.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실시한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강남초이스병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한 후 신경 주사치료를 실시한다. 이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fmf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이를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은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환자에게는 최근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씨가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한다. 이 시술은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치료로 시술이 간단해 당일 퇴원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을 바로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운동을 통해 약화된 관절 및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치료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 및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치료 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

떨리는 목소리, 보톡스 맞으면 '낭랑'

발음 부정확·말더듬도 전문의 통해 치료 가능

본격적인 상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된다.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도 중요하지만 면접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소리'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다. 그리고 그다음이 표정, 태도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혀 짧은 소리는 수술 통해 개선

먼저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우는 듯 덜덜 떨리고 목소리가 끊어져 연속적으로 말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면 연축성 발성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발성기관을 형성하는 후두 근육들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



성대의 진동이 불규칙해져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심리적인 문제도 한 원인이 된다. 이런 연축성 발성장애는 음성·약물·보톡스 치료를 통해 개선 가능한데 특히 보톡스 치료를 받으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ㄷ' 'ㄹ' 발음이 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구강저)을 연결하는 막인 설소대가 짧아 생기는 현상으로 설소대 단축증은 설소대를 끊어주는 수술을 통해 혀의 길이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수술 후에 꾸준한 훈련으로 정확한 조음점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면접 전 떨리는 목소리, 부정확한 발음, 말더듬 등 다양한 목소리 질환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성언어치료 전문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은 "목소리는 발성 습관에 의해 후천적으로 결정된다. 꾸준한 음성언어치료만으로도 목소리 질환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소득 높을수록 비만율 낮다

보건부 '2012 국민건강통계'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적을수록 비만이나 흡연·폭음의 경향이 높아 '건강불평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통계 수치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에서 19세 이상 5500여 명을 월 가구 소득(가구원 수 고려)에 따라 4개 그룹(상·중상·중하·하)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은 최근 1주일 사이 격렬하거나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을 일정 기준(1회 10분 이상 등)에 맞춰 실행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의 실천율이 22.2%로 나타났다.

하위층의 실천율은 상위층보다 7.8%포인트나 낮은 14.4%에 그쳤다. 소득이 평균 정도인 중하위층(17.3%)과 중상위층(16.4%)은 운동 실천율도 상위와 하위 계층의 중간 수준이었다.

비만 정도는 소득과 반비례했다. 소득 상위층의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은 29.5%인 데 비해 하위층은 34.3%로 4.8%포인트 높았다. 소득 중상·중하층 중에서는 각각 31.1%, 35.0%가 비만 판정을 받았다.

흡연의 경우 하위층의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피우는 사람 비율)은 43.9%에 달했지만, 상위층은 이보다 낮은 39.4%에 그쳤다. 남성의 소득 하위(48.2%)와 상위(40.8%)의 흡연율 차이는 7%포인트를 넘었고, 여성에서도 4.9%포인트(하위 10.7%·상위 5.8%)의 차이가 있었다.

연간 음주 경험자 가운데 주마다 최소 한 차례 소주 7잔 또는 맥주 5캔 이상(여성 5잔·3캔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인 '폭음률'도 소득 하위층(31.3%)이 상위층(25.6%)보다 높았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치료비 때문에 제때 병원조차 방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층의 5.9%는 "최근 1년 사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0.9%인 상위층 '경제적 이유 미치료율'의 6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정영일기자 prms@

NBA 펠리컨스 홈구장 '스무디킹 센터'로

10년 파트너십 체결…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경기장 지붕·농구코트 등 시설전반 홍보 활용



미국프로농구(NBA) 뉴올리언스의 프로 농구팀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전용 경기장 스무디킹 센터 예상도. /스무디킹 제공

글로벌 넘버 원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대표 김성완)이 미국프로농구(NBA) 뉴올리언스의 프로 농구팀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이뤄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홈경기장을 '스무디킹 센터'로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스무디킹은 앞으로 10년 동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홈경기장을 스무디킹 센터로 명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거대한 홈경기장 지붕에 스무디킹 브랜드 로고를 새기는 것을 비롯해 펠리컨스 홈 농구 코트, 팀 스코어보드 등 경기장 내·외부 시설 전반을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무디킹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파트너십은 '어 헬시 &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며 고객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돕는 스무디킹의 브랜드 미션과 과일·단백질의 영양 균형을 갖춘 스무디 제품 콘셉트의 NBA 전용구장 론칭이라는 스포츠 마케팅과 어우러져 고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강한 활동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진정성 있는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무디킹 김성완 대표는 "스무디킹과 NBA는 완벽한 조합이다"며 "양 쪽 모두 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이번 NBA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파트너십 체결은 건강과 영양,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스포츠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구단주이자 이사회장인 톰 벤슨은 "스무디킹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파트너십은 스무디킹이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스무디 본연의 건강함과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700여 개 지점을 가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스폰서십은 NBA와 스무디킹·펠리컨스 모두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중요한 스텝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스포츠를 위해 경기장 안팎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NBA의 올스타 게임이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어 이번 NBA 올스타 게임을 통해 많은 농구 팬들이 새롭게 오픈하는 스무디킹 센터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무디킹은 NBA 올스타 게임과 함께 스무디킹의 활기찬 브랜드를 알리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건강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무디킹…2012년 미국 본사 인수 전세계 700개 매장 운영

한편 스무디킹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건강음료 트렌드를 촉발시킨 '스무디'를 직접 창시하고 스무디라는 이름을 붙여준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다. 스무디킹은 1973년 창업자인 스티브 쿠노(Steve Kuhnau)가 자신이 앓던 알레르기와 저혈당을 고치기 위해 천연 과일에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의 각종 영양소를 첨가한 스무디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스무디는 다양한 과일과 영양 파우더를 얼음과 함께 블렌딩한 과일음료로 단백질·비타민·무기질·칼슘 등의 영양 파우더를 첨가한 영양학적 균형을 갖춘 건강 음료다.

2003년 명동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 스무디 시장에서 성장 가도를 달려온 스무디킹은 현재 국내 12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2년 7월 7일에는 식음료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미국 본사를 인수하며 전 세계 700여 개 매장 규모의 글로벌 음료 브랜드로 탈바꿈했다. 이를 계기로 10년 이상 한국에서 다져온 성공적인 경영 전략을 접목시켜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시스템으로 도약하고 있다.

2012년 12월 본사 인수 5개월 만에 싱가포르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현재 8호점까지 오픈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며 글로벌 선두 스무디 브랜드로서의 강한 경쟁력을 세계시장에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W몰, 개점 7주년 할인 행사

백화점형 패션 아웃렛 W몰이 9일 개점 7주년을 맞아 포인트카드 회원에게 5~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에스콰이어·베네통 등 40여 개 브랜드는 기존 할인율에 10% 추가 할인, 세라·주크 등은 5%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먹거리 종목·패션 종목…'마케팅 올림픽'

소치 올림픽 개막앞두고 소비업종 응원행사 푸짐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내 유통과 식음료 업계들이 다채로운 관련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유통업계…먹거리·스포츠용품 할인, 기념주화 증정 등 행사 풍성

이마트는 6일부터 23일까지 '동계올림픽 응원 먹거리 모음전' 행사를 벌인다. 치킨·맥주 등 대표적인 야식 먹거리를 대규모로 준비해 10~30% 할인 판매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위한 야식으로 바삭크리스피치킨과 온가족응원김밥세트, 파티팩 등을 처음 기획해 선보인다.

롯데마트도 6일부터 세계 맥주·음료·마른안주 등의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는 등 '올림픽 모드'에 돌입해 6일부터 12일까지 '세계 맥주 500㎖(캔) 균일가 행사'를 통해 정상가 대비 최대 45%가량 할인하고 '마른안주 기획전'에서는 총 6가지 마른안주를 최대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AK플라자는 16일까지 전 점에서 구매객 대상으로 모바일앱을 통해 한국팀의 예상 금메달 수를 응모하면, 결과와 일치한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67명에게 TV·진공청소기 등을 증정하는 '금메달 살림퀸 경품이벤트'를 벌인다.

마리오아울렛도 7일부터 23일까지 '가자! 소치로! 마리오란 말(馬)이오!' 기획전을 열고, 아디다스·푸마 등 약 100여 개의 브랜드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획득 시 일부 품목을 익일 기존 할인율에 추가 최대 10% 할인해준다. 또 행사 기간 동안 구매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올림픽 기념주화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홈쇼핑 업계…골드바·할인쿠폰 증정 등 행사 다양

CJ오쇼핑은 올림픽 기간 TV 홈쇼핑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은품과 경품을 주는 '응답하라, 대한민국' 이벤트를 전개한다. 17~21일에는 구매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골드바(11.25g)를 증정한다.

현대홈쇼핑은 7~23일 '응원하라 2014' 이벤트를 연다.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다음날 구매 고객들에게 2만·1만·5000원권 할인쿠폰을 나눠준다.

◆외식업계…특별 메뉴 출시, 1+1 할인행사 마련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7일부터 인기 메뉴를 저렴하게 구성한 금·은·동 세트 메뉴를 할인 판매하고, 대한민국 선수가 메달 획득 시에는 전 메뉴 2000원을 할인해주는 '황금메달 기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이스크림 디저트 카페 나뚜루팝도 7일부터 23일까지 '싱글퀸컵 1+1' 이벤트를 벌인다. 금메달을 획득한 당일 오후 2~6시까지 '그린티 클래식' 싱글퀸컵 사이즈를 구매하면 같은 사이즈의 원하는 맛의 아이스크림 1가지를 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패션·주얼리 업계…10배 포인트 적립·김연아 화보 제공



패션전문점 웰메이드는 7일부터 23일까지 멤버십 포인트를 기존 적립률의 10배 적립해주는 '적립 폭탄 이벤트'를 실시한다.

피겨 여왕 김연아를 브랜드 모델로 기용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지난달 29일부터 '연아 라인' 구매객에게 '화이트 드림 노트'를 증정하고 있다. 화이트 드림 노트는 김연아 선수의 경기 모습과 화보·사인 등이 담겨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tvN
좋아요가 궁금할 땐?
천만 좋아요가 될 때까지!
공유TV
좋아~요
tvN
공유하기
김성주님 이경규님외 21,111명이 좋아합니다.
이경규님이 김구라님의 담벼락에 '좋아요'를 공유하였습니다.
2월 11일 첫방송 /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



화보 속 유지태·김효진 '부부보다 연인' 연예계 대표 '로맨틱 커플' 유지태·김효진(오른쪽부터)이 달콤한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유지태와 김효진 부부는 6일 스타 매거진 '하이컷'에서 로맨스 영화 속 명장면을 패러디한 커플 화보를 선보였다. 특히 2014년 타미 힐피거의 뮤즈로 선정된 두 사람은 브랜드 고유의 프레피 룩을 감각적인 커플룩으로 잘 소화해냈다. /하이컷 제공

남자 피부 "살살 달래줘"

겨울철 꿀피부男 되기 위한 아이템 및 관리법

'피부 관리'는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꽃미남을 넘어 '꿀피부'가 주목받는 시대를 맞아 남성들도 예외가 없다. 한파·수면 부족 등으로 지친 피부를 진정시킬 아이템들을 알아본다.



◆얇은 면도날로 자극 최소화

기상 후 민감해진 피부 상태에서 면도를 하게 되면 수염은 물론 피부 보호막까지 자극이 가 피부건조증과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면도기는 밀착이 뛰어나고 절삭력이 우수한 제품이 좋다. 면도날이 얇을수록 여러 번 문지를 필요가 사라져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 실버터치'는 수술용 매스보다 얇은 다중 면도날이 특징이다.

◆유분 많은 남성피부 '클렌징' 중요

남성 피부는 여성보다 유분이 많아 피지와 각질이 쉽게 쌓여 세안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번들거림은 물론 칙칙한 피부톤을 고착시킬 위험이 높다. 특히 술자리가 있었다면 집에 돌아온 뒤 모공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 민감한 피부라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옴므 화이트필 클렌저'는 순수 플랑크톤이 함유된 크림 타입으로, 피부 속 깊은 곳 노폐물을 부드럽게 닦아낸다.

◆여성 못잖게 보습관리 필요

하루 종일 난방기를 틀어대는 겨울에는 피부도 목마르다. 평소 피부의 수분감을 잃지 않으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부은 얼굴은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세안 후 보습·수분 제품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남성 전용 수분크림인 '까쉐 워터드롭 젤 크림'은 흡수력과 지속력이 우수하다.

/서승희기자 ssh814@metroseoul.co.kr

뉴스&뉴스

러쉬 '사인 오브 러브'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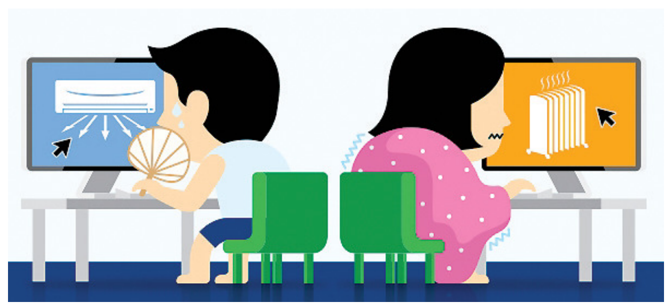
●영국화장품 브랜드 러쉬는 14일까지 모든 인간의 동등한 사랑을 지지하는 '사인 오브 러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러쉬는 이번 캠페인에서 러시아 동성애 금지법에 반대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사랑의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1번가 '래쉬 마스카라' 할인

●오픈마켓 11번가는 미국 화장품 업체인 메이블린 뉴욕과 제휴하고 '그레이트 래쉬 마스카라'를 온-오프라인 최초로 공식 할인한다고 6일 밝혔다. 그레이트 래쉬 워터프루프와 그레이트 래쉬 랏츠오브래쉬스 등 2종으로, 판매 가격에 비해 11% 저렴하게 선보인다. 이달에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화장솜(100P), 립&아이리무버, 미니 메이크업 키트 2종을 추가 증정한다.

"추우니까" 쇼핑 더 하는 그녀들

G마켓 계절 상품 판매량
한파주의보땐 여성 고객
폭염땐 남성구매 더 늘어



국내 여성들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쇼핑을 많이 한다는 이색적인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6일 G마켓에 따르면 계절 상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추위를 막는 상품에, 남성은 더위를 피하는 상품에 더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G마켓의 경우 서울의 평균기온 영하 7.4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의 겨울 상품 판매량을 직전 주 같은 요일인 1월 28일과 비교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 고객의 구매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겨울 패션 상품인 재킷과 코트 판매량의 경우 여성용은 127%나 증가했지만 남성용은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갑도 여성 구매량은 37% 늘어난 반면, 남성 구매량은 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핫팩과 손난로의 경우 남성 고객은 전주에 비해 판매량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고객의 구매량은 13배 이상(1249%) 급증했다는 것이다.

난방 제품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 고객이 많이 늘었다. 가장 인기를 얻은 난방제품은 온풍기로, 여성의 경우 전주 대비 구매량이 5배(421%) 이상 급증했지만 남성은 88% 증가했다.

반면에 남성 고객의 더운 날 관련 상품 구매가 늘었다. 지난해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한 8월 12일(서울 평균기온 29.3도)의 여름 상품 판매량을 전주 같은 요일(8월 5일)과 비교한 결과 이 기간 에어컨 전체 구매량은 남성이 60% 증가한 반면, 여성은 47% 증가했다.

리복 신제품 '제트퓨즈 런'



스포츠 브랜드들이 '달리기의 계절' 봄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러닝화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리복은 30~40대를 겨냥한 러닝화 '제트퓨즈 런'을 내놨다고 6일 밝혔다.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압력에 따라 에어백에 압축된 공기가 완충 역할을 하는 운동화로, 고무창의 무게를 줄였고 통기성을 높였다. 가격은 15만9000원.

아디다스가 새롭게 출시한 러닝화 '스프링블레이드'는 뛰어난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밑창에 경사진 형태의 폴리머로 만든 16개의 고탄력 블레이드를 적용해 수평 방향으로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각 블레이드는 뛰는 사람의 보폭에 따른 지지력과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하학 구조·두께·자세에 맞춰 제작됐다. 가격은 20만9000원.

밸런타인 추억의 사진 보내면 와인 증정

본지-신동와인 이벤트

메트로신문은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독자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신동와인에서 제공하는 에스텔라도(Estelado) 와인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

총 1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의 응모 방법은 밸런타인데이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메트로신문 e메일(metro@metroseoul.co.kr)로 보내면 된다. 또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내 응모 게시판에 사랑하는 연인과 에스텔라도 와인을 함께 마시고 싶은 희망 사항을 남겨도 자동 응모된다.



특히 e메일과 게시판 응모를 동시에 하거나 사랑이 듬뿍 담긴 사진을 함께 보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번 행사의 응모 기간은 2월 10일까지이며 당첨자는 1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경품 수령일은 12일부터 17일까지로 메트로신문에서 와인 교환권을 수령한 후 3월 31일까지 신동와인 직영점(한남·청담)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본점·무역점·신촌점·목동점·천호점·일산점·부산점·대구점 등에서 하면 된다. (단 롯데백화점 본점과 부산서면점에서의 교환은 백화점 사정으로 불가)

이번에 경품으로 제공되는 에스텔라도는 옅은 핑크빛의 아름다운 로제 스파클링 와인으로 칠레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인 파이스(Pais) 특유의 신선함과 생동감, 순수함이 느껴지는 와인이다.

한경희 스팀청소기 美서 최고 제품상

한경희생활과학은 스팀청소기 '자동스팀 파워액션'이 미국 2014 하우스웨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의 제품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1분에 660회 자동으로 왕복하는 전동 패드를 탑재해 핸들 방향만 잡아주면 손목에 무리 없이 쉽고 빠르게 살균 스팀 청소가 가능하다.

또 본체와 손잡이를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해 잡는 느낌이 좋고, 손목 부담을 최소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스팀파워액션은 흰색이며, 한경희생활과학 온라인 공식 쇼핑몰 및 직영 매장·백화점·할인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야야'로 국내 활동 재개 데뷔 8년차 트롯돌 양지원

트로트계에 샛별이 등장했다. 올해로 스무 살이 된 데뷔 8년차 신인 양지원은 신보 '아야야(A-Ya-Ya)'로 국내 활동을 재개했다. 2007년 국내 음반 '나의 아리랑'을 선보인 후 돌연 일본행을 선택했던 그가 돌아온 것이다. 제2의 트로트 부흥기를 만들겠다며 의지에 찬 목소리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2007년 '나의 아리랑'으로 정식 데뷔한 뒤 그해 일본으로 진출한 양지원이 '아야야'로 국내에 컴백했다.

"R&B처럼 트로트 부르니 떴어요"

신세대 가사+뽕짝 멜로디
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노래
1020팬도 확~ 늘었답니다
제 목표는 트로트계 문익점

◆ "트로트계의 문익점 될래요"

노래 '아야야'에는 중국 전통 악기인 '고쟁'의 선율이 인상적이다.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따라 추기 쉬운 안무를 더해 트로트 같지 않은 트로트인 것도 특징이다. 펑카(펑키+폴라) 리듬의 슈가트로트로 신세대적인 가사와 정통 트로트 멜로디를 더해 달콤함을 입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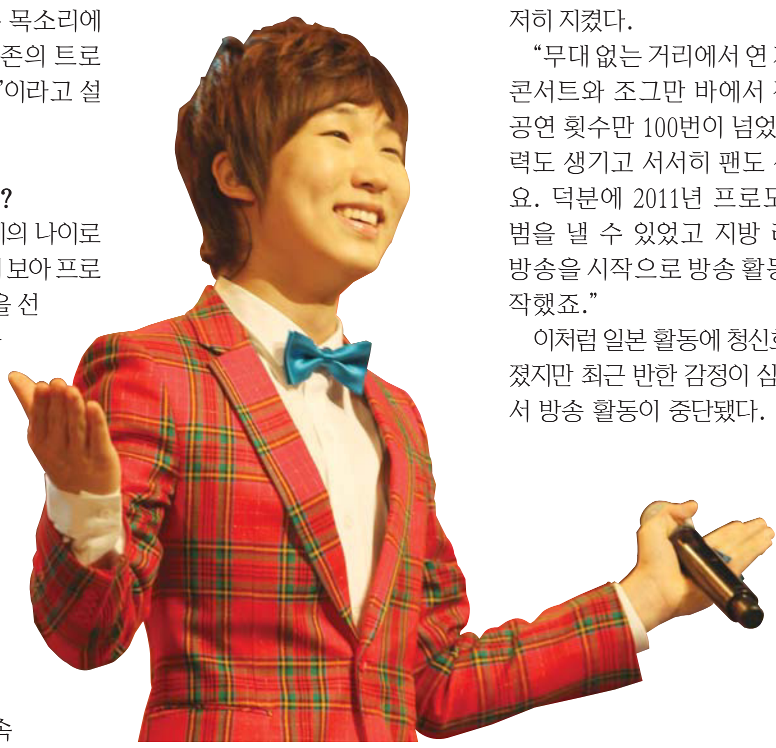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30~40대의 팬층이 많았는데 이번엔 10~20대 층의 팬들이 늘어났죠.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가 배워왔다는 춤을 보여주는데 알고 보니 '아야야'의 '미어캣 댄스'였어요. 트로트를 다른 장르와 접목시키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에서 충분히 먹힌다고 확신할 수 있었죠. 정통 트로트에 힙합, 록, 일렉트로닉 요소를 더해 새로운 트로트 장르를 만들고 싶어요. 트로트계의 문익점이 되는 게 목표죠."(웃음)

'아야야'를 부르는 양지원의 목소리는 여느 트로트 가수와 달랐다. 지르는 스타일에서 벗어나 절제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마치 R&B를 부르듯 부드러웠다. 그는 "'아야야'를 준비하면서 발성법을 새롭게 배웠다"며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려웠지만 판소리와 경기도 민요 등을 배웠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트로트 창법을 더해 기존의 트로트와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복귀 '아베' 때문?

양지원은 2007년 13세의 나이로 국내에 데뷔했다. '제2의 보아 프로젝트'를 꿈꾸며 일본행을 선택한 그는 여느 아이돌 그룹 데뷔만큼이나 고생이 많았다.

"일본 엔카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 문화를 완벽하게 알아야 했죠. 일본어 공부 1년 만에 일본어능력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청소도 하고 일본 신오쿠보·시부야·하라주쿠 지하철 앞에서 홍보 전단지를 직접 뿌리기도 했죠."



한국 아이돌의 일본 진출과 달리 양지원은 일본 엔카의 룰을 철저히 지켰다.

"무대 없는 거리에서 연 게릴라 콘서트와 조그만 바에서 진행한 공연 횟수만 100번이 넘었죠. 담력도 생기고 서서히 팬도 생겼어요. 덕분에 2011년 프로모션 앨범을 낼 수 있었고 지방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죠."

이처럼 일본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최근 반한 감정이 심해지면서 방송 활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본 재입성과 중국 진출 등 K-트로트로 한류 중심에 서겠다는 그의 포부는 변함없었다.

◆ 올해 목표 '아이돌 콜라보' '신인상'

10년 전엔 '댄스 신동'으로 이름을 떨칠 만큼 양지원은 다방면에 끼가 많았다. 최근에는 작곡과 편곡 등을 공부하며 음악적으로 한층 성숙해졌다.

"1990년대 트로트 전성시대를 다시 만들고 싶어요. 요즘 가요계 트렌드에 맞춰 트로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죠. 그중 한 가지는 비와 태진아 선배님처럼 아이돌 그룹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대중가요처럼 젊은 친구들도 트로트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목표는 신인상이다. 그는 "평생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신인상에 욕심이 난다"며 "양지원만의 색깔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HOT PHOTO



박한별 아찔한 보디라인 배우 박한별이 섹시한 명품 보디라인을 공개했다. 그는 전속모델로 활동 중인 언더웨어 브랜드 보디가드의 2014 봄 화보에서 아찔한 시스루 패션을 선보였다. 이번 화보는 '프레시 시크'를 콘셉트로 진행됐다. 박한별은 탄력적인 보디라인과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섹시미를 더했다. 보이시한 숏커트 스타일에 탄탄한 볼륨 몸매를 뽐내며 도회적인 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양성운기자

B.A.P 'K-팝 신성'답다

일본·캐나다 앨범차트 1위… 9개국서 '퍼스트 센서빌리티' 인기몰이



그룹 B.A.P(사진)가 국내를 넘어 해외 음원 시장까지 강타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입증했다.

B.A.P의 첫 번째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빌리티'는 지난 5일 발표된 아이튠즈 스토어 톱 10 힙합 앨범차트에서 일본과 캐나다에서 1위, 미국과 영국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와 북미·유럽·오세아니아 등 대륙을 초월해 총 9개국의 차트에 고루 이름을 올린 B.A.P는 카니예 웨스트·플로 라이다·켄드릭 라마 등 최고의 뮤지션들과 한 차트 내에서 경쟁하며 선전을 펼치고 있다.

B.A.P의 이번 앨범은 발표 직후 미국 아이튠즈 톱 100 앨범차트에서 44위로 진입함과 동시에 총 12개국에서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원 샷'과 세 번째 미니앨범 '배드맨'으로 각각 11개국과 5개국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컴백을 앞두고 트위터에서 진행한 '스페셜 Q&A' 이벤트에 약 2시간 동안 45만 건 이상의 멘션이 몰리는가 하면 슈퍼볼 등의 굵직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세계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한 바 있다. 이로써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글로벌 K-팝 신성'으로서 영향력을 입증했다.

타이틀곡 '1004'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B.A.P는 다음달 단독 콘서트 '비에이피 라이브 온 어스 서울 2014'로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씨엔블루 자작곡 들고 이달 컴백

씨엔블루(사진)가 리더 정용화의 자작곡을 앞세워 이달 컴백한다.

씨엔블루는 다섯 번째 미니앨범의 수록곡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웠으며, 정용화가 쓴 곡을 타이틀곡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미니앨범 '리: 블루'의 수록곡 '아임 쏘리'도 정용화의 자작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리: 블루'는 아시아 각국 차트뿐 아니라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차트 정상을 석권했다.



이번 앨범은 최근 1년간 해외 활동을 하며 다진 팀워크와 한층 성장한 음악성을 느끼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씨엔블루는 지난해 여름부터 14개국 18개 도시에서 20회에 걸쳐 월드투어 '블루문'을 진행했다.

또 정용화·강민혁·이정신은 각각 KBS2 '미래의선택', SBS '상속자들', KBS2 '칼과 꽃'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발히 활동했다. 이종현은 지난해 연말 주니엘과 프로젝트 듀엣 '로맨틱J'로 활동했다.

한편 5일 일본에서 발표한 베스트 앨범 '프레젠트'는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지드래곤·태양, 비버와 어깨 나란히

美 퓨즈 TV 선정 '음악계 위대한 브로맨스' 뽑혀… 아시아 가수 유일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이 미국 퓨즈 TV가 선정한 '음악계 위대한 브로맨스' 17팀에 이름을 올렸다.

4일(현지시간) 퓨즈 TV는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며 경쟁자임에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17팀을 선정했다.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지드래곤과 태양이 뽑혔고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제이지, 저스틴 비버와 제이든 스미스, 에미넴과 닥터드레, 제이지와 카니예 웨스트, 폴 매카트니와 존 레넌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퓨즈 TV는 "지드래곤과 태양의 유대는 '원 오브 어 카인드'다. 13년 우정을 이어온 둘은 월드투어를 하는 지금까지도 매우 가까운 사이다"고 전했다. 또 지드래곤이 태양의 최근 싱글 '링가링가'를 프로듀싱한 사례를 소개하며 두 사람의 음악적 시너지를 언급했다.

태양과 지드래곤은 13세에 YG엔터테인먼트로 영입돼 빅뱅의 시초가 된 가장 절친한 사이다. /유순호기자 suno@



태양 지드래곤

팝스타 존 메이어 5월 첫 내한 공연



빼어난 외모와 음악 실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팝스타 존 메이어(사진)가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메이어는 5월 6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한국 팬들과 만난다. 2001년 데뷔 이후 200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메이어는 7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해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뮤지션이다.

데뷔 앨범 '룸 포 스퀘어'는 80주 이상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에 머물렀고, 2003년 내놓은 2집 '헤비어 싱스'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존 메이어는 지미 헨드릭스와 에릭 클랩튼의 뒤를 잇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블루스와 컨트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곡들을 발표해온 메이어는 환경·복지·예술 등 여러 분야의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의 14번째 기획으로 진행된다. /유순호기자

日 록밴드 오렌지 렌지 14~15일 홍대 무대



일본 록밴드 오렌지 렌지(사진)가 14~15일 홍대 롤링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전차남', 애니메이션 '코드기어스' 등의 OST로 한국에 유명한 이들은 당초 1회 공연을 계획했지만 예상 외로 뜨거운 인기에 한 회 공연을 추가했다.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다섯 멤버들이 2002년 결성한 오렌지 렌지는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음악과 탁월한 대중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지난해 여름 새 앨범 '스파크'를 발표한 이들은 9월부터 일본 27개 도시에서 30회 공연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00여 명의 일본 관객들도 이번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중남미 3개국 TV 전파 타는 '기황후'

페루·파나마·푸에르토리코에 선판매



높은 인기 속에 방영 중인 MBC 월화극 '기황후'(사진)가 중남미 3개국에 선판매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6일 "MBC아메리카가 북미 최대 방송 마켓인 '2014 NATPE'에서 '기황후'를 페루 파나메리카나 TV, 파나마 Sertv, 푸에르토리코 등에 선판매했다"고 밝혔다.

'2014 NATPE'는 미국방송제작자연맹이 주최하는 북미 최대 방송영상 마켓으로 중남미권 시장을 겨냥한 프로그램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51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렸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가 마련한 한국공동관에는 KBS미디어·MBC아메리카·SBS인터내셔널·CJ E&M 등 6개 방송 및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번 마켓에서 KBS미디어는 '봄의 왈츠'를 비롯한 9개 작품을 미국 배급사 크런치롤에 공급하기로 했고, SBS인터내셔널은 '천만번 사랑해'를 에콰도르·푸에르토리코·콜롬비아·볼리비아·멕시코 등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CJ E&M은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 디바'의 남미권 포맷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는 한국공동관 운영 이외에 한국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중남미 주요 국가 바이어 20여 명과의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폭스 텔레콜롬비아의 마우리시오 나바스 탈레로 부사장 등 현지 방송 관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여 중남미 시장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의 김일중 소장은 "중남미 지역은 인구가 많고, 단일 언어권인 데다 해마다 10%씩 성장하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세가지 있는 '태양은 가득히'

화려한 스케일·속도감 있는 전개 눈길… 배우 팀워크 빛나



KBS2 새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사진)가 다양한 매력으로 안방 흥행을 예고했다.

'태양은 가득히'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화려한 스케일이다. 극 초반에는 태국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두짓타니 호텔 해변을 배경으로 한 방콕 주얼리 페어부터 보석 궁전을 연상하게 하는 주얼리 브랜드 벨 라 페어의 정원 세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을 비롯한 추격 액션, 총기살인 사건 등이 이어진다.

두 번째는 지루하지 않은 빠른 전개다. 태국에서의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으로 아버지와 인생 모두를 잃고 국제적 보석 딜러가 돼 돌아온 정세로(윤계상)와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얼리 브랜드 벨라페어에만 전념하는 한영원(한지혜)의 재회가 관심을 끈다. 극적인 사건 속 치밀하게 얽힌 인물 간의 관계를 밀도 높은 연출과 감각적 영상미로 풀어내 몰입도를 배가시킨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팀워크다.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배우들은 작품과 캐릭터에 무한 애정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열정을 과시하고 있다.

오는 17일 첫 방송을 앞둔 '태양은 가득히'는 스토리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앞세워 또 하나의 인기 드라마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윤계상·한지혜·조진웅·김유리·송종호·손호준·김영철·전미선·김선경·김영옥·이재원 등이 출연한다. /양성운기자 ysw@

유연석·민도희 '은밀한 유혹'으로 재회



tvN '응답하라 1994'의 주역 유연석(사진 왼쪽)과 민도희(오른쪽)가 스크린에서 다시 만난다.

유연석·임수정 주연의 영화 '은밀한 유혹'에 민도희가 합류했다. 민도희는 이번 작품으로 스크린에 데뷔한다.

영화 '세븐데이즈'의 각본을 쓰고 '시크릿'을 연출한 윤재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초호화 요트를 무대로 인생을 뒤바꿀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제안에 흔들리는 여자와 그에게 일생일대의 거래를 제안하는 남자의 사랑과 욕망을 그린다.

민도희는 극중 백마 탄 왕자를 꿈꾸는 초호화 요트의 막내 승무원 유미 역할로 통통 튀는 매력과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경영은 초호화 요트에서 5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독재자로 군림하는 김석구 회장 역할을 맡았다. 박철민은 요트의 선장으로, 진경은 김 회장의 개인 매니저 혜진 역으로 캐스팅됐다. /탁진현기자

'빛나는 로맨스'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고정 시청층이 두터운 지상파 일일극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MBC 일일극 '빛나는 로맨스'(사진)가 상승세를 탔다. 지난 5일 방송된 '빛나는 로맨스'는 12.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뒤늦게 태식의 결혼 소식을 접한 순옥(이미숙)이 말숙(윤미라)을 향해 뺨을 때리며 참아왔던 분노를 터트렸고, 빛나 역시 눈물을 흘리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극 말미에는 마트를 찾아온 애숙(이휘향) 때문에 깜짝 놀라는 순옥의 모습이 그려져 둘 사이에 새로운 비밀을 예고했다.

또 KBS2 일일극 '천상여자'도 주연배우 윤소이와 권율이 핑크빛 사랑을 예고하면서 18.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천상여자'는 지난 3일 자체 최고 시청률 19%를 기록한 데 이어 꾸준히 시청률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KBS1 일일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는 이날 29.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5.3%를 기록한 MBC '기황후'를 제치고 전체 드라마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양성운기자

한·일 버라이어티 달인의 만남

나영석 PD, 거장 후지무라 다다히사와 이야기꽃



한국과 일본의 버라이어티 달인들이 만난다.

tvN은 "나영석(사진) PD가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의 엠넷 재팬 방영을 기념해 일본으로 떠난다"며 "그곳에서 일본의 버라이어티 거장 후지무라 다다히사를 만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도쿄 신주쿠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버라이어티 TV포럼'을 통해 만난다. 이날 행사에는 '꽃보다 누나' 엠넷 재팬 방영 기념으로 나영석 PD와 일본 버라이어티 '수요 도우데쇼'로 유명한 홋카이도 TV의 후지무라 다다히사 PD가 참석한다.

또 현지 연예인으로 한국어에 능통한 후지와라 도모키가 사회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한·일 양국의 버라이어티방송 제작 노하우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나영석 PD는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의 흥행을 시작으로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로 여행 버라이어티의 계보를 이어왔다. 후지무라 다다히사가 1996년 선보인 '수요 도우데쇼'는 여행 버라이어티로 현재 일본을 넘어 미국과 대만 등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꽃보다 누나'는 엠넷 재팬 채널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방송된다.

/양성운기자

'타이타닉' 닮은 꼴 '폼페이' 흥행 쏠까

'타이타닉' 제작진 참여 화산폭발 대재난 다뤄 개봉날짜도 20일 같아



할리우드 초대형 재난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이하 '폼페이'·큰사진)이 '타이타닉'(작은사진)의 흥행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 영화는 실제 재난 상황을 영화화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타이타닉' 제작진 참여, 수차례의 영화화 등 마치 '평행이론'처럼 여러 면에서 '타이타닉'과 닮아 있어 전 세계적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두 작품 모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실제 대재난을 소재로 했다. '타이타닉'이 1912년 북대서양 항로에서 빙산과 충돌해 1513명의 생명을 앗아간 당시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를 영화화했다면, '폼페이'는 79년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도시 전체를 사라지게 만든 베수비오 화산 폭발을 다뤘다.

영화보다 극적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폼페이'는 1908년·1913년·1926년·1960년·2014년 총 다섯 차례 영화로 선보였고, '타이타닉'은 1953년·1958년·1980년·1996년·1997년 영화로 제작돼 관객들과 만났다. 특히 1997년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타이타닉'의 개봉일도 '폼페이'와 같은 2월 20일이었다.

또 '폼페이'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새겨진 '인간 화석'에서 모티브를 얻어 노예 검투사 마일로(킷 해링턴)와 폼페이 영주의 딸 카시아(에밀리 브라우닝)의 애절한 사랑을 그렸다. 이러한 연인의 모습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저버리지 않았던 '타이타닉'의 잭(리어나도 디캐프리오)과 로즈(케이트 윈즐릿)의 모습과 닮아있다.

압도적인 화산 폭발과 그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폼페이를 집어삼키는 장면 역시 '타이타닉'에 참여한 제작진의 손에 의해 탄생됐다. '타이타닉'에서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와 재난 당시를 실감 나는 특수효과로 재현한 이들은 한층 발전된 할리우드 기술력과 노하우를 '폼페이'에 쏟아부었다.

이 영화는 20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스크린서 만나는 볼쇼이 갈라쇼

메가박스 29일부터 상영

세계 5대 예술극장으로 손꼽히는 볼쇼이 극장의 초대형 갈라쇼를 스크린에서 만난다.

2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볼쇼이 극장의 2011년 재개관을 기념해 열린 '볼쇼이 스페셜 갈라' 공연 실황이 메가박스에서 29일부터 상영된다.

갈라쇼에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볼쇼이 발레단과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이 총출동해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 '수도원에서의 약혼' '오를레앙의 소녀' '황제에게 바친 목숨'과 발레 '신데렐라' '스파르타쿠스' '파리의 불꽃' '돈키호테' 등 22편의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볼쇼이 스페셜 갈라' 포스터. /그린나래미디어 제공

소프라노 비올레타 우르마나와 나탈리 드세이, 세계 3대 바리톤이라 칭하는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도 참여한다.

/탁진현기자

"신천지 투자 영화? 경악했다"

'신이 보낸 사람' 감독 "홍보 지속시 방관 않을 것"



영화 '신이 보낸 사람'(사진)의 김진무 감독이 '신천지 투자설' 진화에 직접 나섰다.

김 감독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이 보낸 사람'을 신천지에서 투자한 영화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겼다"며 "이 영화에 편승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홍보를 계속한다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이 보낸 사람'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그들의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영화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북녘땅의 동포들을 향한 눈물의 기록"이라면서 "영화를 보면 제작진의 의도와 진정성을 느낄 테니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제작사 태풍코리아는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이 보낸 사람'과 신천지는 그 어떤 연관도 없음을 알린 바 있다.

이 영화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화로 13일 개봉 예정이다.

개봉에 앞서 종교단체 신천지가 최근 온라인 사이트 및 블로그·카페 등에 자신들의 종교와 이 영화를 연관 지어 글을 게재하면서 '신천지가 영화 제작에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신천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준말로 이만희씨가 창설한 신흥 종교다. 국내에 12개의 지파와 45개의 지교회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유럽·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 해외 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 수는 2014년 1월 기준으로 약 12만 명에 달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아카데미 후보작 13편 미리 만난다

CGV 무비꼴라쥬 기획전

다음달 열릴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요 후보작 13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CGV 무비꼴라쥬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CGV 구로·대학로·압구정·여의도 등 무비꼴라쥬 13개 전용관에서 '2014 아카데미 기획전'을 개최한다.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 9개 부문 후보에 오른 스티브 맥퀸 감독의 '노예 12년' 등이 상영된다.



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필로미나의 기적' '어거스트: 오세이지 카운티'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등 미개봉작과 개봉작 가운데 상영을 끝낸 '블루 재스민' '올 이즈 로스트' '캡틴 필립스'도 재상영된다.

/유순호기자 suno@

대기업 외압설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119개 확보

6일 개봉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사진)이 '대기업 외압' 논란 속에서 상영관 100개 이상을 확보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에 따르면 6일 현재 이 영화의 상영관 수는 CGV 50개, 롯데시네마 21개, 메가박스 27개 등 총 119개가 됐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롯데시네마 상영관은 처음 7개에서 청주·포항·목포센트럴·경주 등 14개의 상영관이 추가 됐다.



이에 앞서 '또 하나의 약속'의 배급사 OAL 측은 "롯데시네마는 전국적으로 7개 극장에서 개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면서 "대기업 체인 멀티플렉스가 아닌 개인 극장들이 전국적으로 약 20개의 극장을 배정한 것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외압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라며 롯데시네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영화는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씨와 딸의 죽음에 삼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아버지 황상기씨의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박철민·김규리·윤유선·박희정·유세형·이경영이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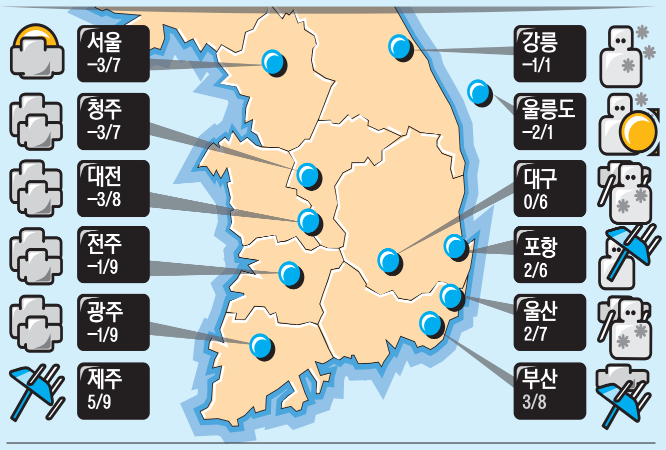
/탁진현기자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때론 상쾌하게-
때론 유쾌하게-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CHAMP
FashionN
view
CINEf
FOXlife
E channel
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드라마에서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Tcast는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10개의 채널을 보유한 컨텐츠 미디어 그룹입니다.]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N CINEf CHAMP FOX FOXlife FX

날씨

2/7 金 일출시각 07:31 일몰시각 18:0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천식으로 인한 기침은 밤에 더 심해집니다. 기침으로 불편을 느낀다면 당장 금연해야 하고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9	4	8	1	
		8	7				3	
		3					2	
	1				7	9		
	6			8		7	5	1
	8			2	9			
	3	7	4		1			
2					8			5

		5		8		2		
	6		1	5	9		3	
8								6
	4		7		5		2	
5	2						4	7
	7		4		8		5	
3								4
	9		5	3	1		8	
		2		6		3		

스도쿠 정답

1	7	4	8	3	6	5	9	2
3	2	6	5	9	4	8	1	7
9	5	8	7	1	2	4	3	6
7	9	3	1	4	5	6	2	8
8	1	5	2	6	7	9	4	3
4	6	2	9	8	3	7	5	1
5	8	1	6	2	9	3	7	4
6	3	7	4	5	1	2	8	9
2	4	9	3	7	8	1	6	5

4	3	5	6	8	7	2	9	1
2	6	7	1	5	9	4	3	8
8	1	9	2	4	3	5	7	6
9	4	6	7	1	5	8	2	3
5	2	8	3	9	6	1	4	7
1	7	3	4	2	8	6	5	9
3	5	1	8	7	2	9	6	4
6	9	4	5	3	1	7	8	2
7	8	2	9	6	4	3	1	5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사라지는 국내 첫 고가차도



권기봉의 **도시산책** <67>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역사의 다양한 흔적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현대에 지어진 건물이나 시설물의 경우엔 겉보기가 수수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것들이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 근처에 있는 아현고가도로가 한 예다.

아현고가도로가 세워진 것은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지난 1968년이었다. 서울시청과 신촌 사이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거추장스러운 땅 위를 피해 높다란 공간에 길이 939m, 폭 15m 규모로 '하늘 길'을 놓은 것이다. 국내 첫 고가도로였다. 3년 뒤 청계고가가 개통되기 전까지 국내 최장을 자랑하기도 했다.





1968년 개통 당시의 아현고가도로(위)와 철거를 앞둔 아현고가.
/국가기록원 제공·연합뉴스

그런 아현고가도로가 곧 사라질 예정이다. 떡전고가차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5개의 고가차도가 철거됐는데 이제 아현고가도로 차례인 것이다. 개통 45년5개월 만의 일이다.

오는 7월에는 약수고가도로가, 12월에는 서대문고가도로도 철거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위주로 짜여온 한국의 도로체계가 2000년대 들어 보행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비단 고가차도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현고가도로에서 멀지 않은 신촌로는 이미 지난달부터 보행자와 버스전용도로로 운용되고 있다.

급팽창하던 서울 도시사의 증거와도 같았던 아현고가도로. 그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독자라면 내일(8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아현동에 나가볼 일이다. 시민들이 고가차도 위를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홉수에 걸렸는지 사기 당해 올해 음력 7월·10월 조심해야

두산산 남자 56년 7월 4일 양력 아침

Q 예로부터 아홉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앞으로 인생 행로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A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운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며 운이 좋게 흐르면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대운과 세운이 나빠도 그날 일진이 좋아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귀하는 '물이 샘솟는 바위'와 같은 형상으로 사주로 설명하자면 수(水)생일간 정재격(正財格)으로 노력가이며 자상한 성격입니다. 사주에 식신(食神: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유기(有氣)해 식신생재돼 사주는 귀격입니다. 사주 여덟 자가 양팔통(陽八通)이니 재성(재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자(子)년에 충살(沖殺:충돌하고 해를 입음)을 받아 장애물을 만나 사고가 난 것과 같고 관재(官災)를 당합니다. 앞으로 올해 음력 7월과 11월, 2016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온갖 직업 전전하다 개과천선 말년운 좋으니 열심히 사세요

ynin 남자 52년 5월 5일 양력 오후

Q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어림잡아 20여 가지 직업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개과천선하고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운이 없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A 사주는 도세주옥(陶洗珠玉:귀중한 구슬을 가려내어 씻음)으로 학벌과 상관없이 지닌 재능이 많고 더욱이 지혜가 비상하지만 일종의 교만심이 있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유시무종(有始無終)하여 시작은 있으나 끝을 내지 못하며 주변을 무시하다 보니 자모자패(自謀自敗)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성미가 곧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사업을 하면 필패(必敗)합니다. 40대 중후반에 재물에 설기(泄氣)가 심한 운이 되어 재물이 탕진됐으나 무술(戊戌) 대운이 된 노후에는 진술충(辰戌沖)으로 재물이 개고(開庫:창고문이 열림)돼 재물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년운이 좋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7일 (음 1월 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 **48년생** 돈 앞에서 처신 잘하라. **60년생** 재운이 트여 수입이 풍족하다. **72년생** 이름이 알려질 때 구설수 조심하라. **84년생** 일할 여건이 좋아 만사형통이구나.

소 — **49년생** 편안한 마음은 건강에 약이다. **61년생** 부귀가 함께하니 부러울 게 없구나. **73년생**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85년생** 변수가 있어도 조지일관할 것.

호랑이 — **50년생** 장거리 외출 땐 사고 조심. **62년생** 시비 참으면 나중에 웃는다. **74년생** 주변의 충고 받아들이면 순풍에 돛. **86년생** 상하 간에 끼어 곤란한 하루 보낸다.

토끼 — **51년생** 경사로 지출할 일 생긴다. **63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할 것. **75년생** 걱정했던 일은 무사히 넘겨 천만다행. **87년생** 가는 곳마다 박수가 쏟아진다.

용 — **52년생** 자녀의 투정은 무시할 것. **64년생** 기세등등하나 실속은 별로다. **76년생** 함께 일할 동료 잘 선택하라. **88년생** 모험만 감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다.

뱀 — **53년생** 걱정은 소문내야 해결된다. **65년생** 망신살 있으니 주색 가까이하지 마라. **7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 필요하다. **89년생** 큰 나무가 물을 만난 형국.

말 — **42년생** 필요한 돈이 들어와 유쾌하다. **54년생** 고집부리면 고난이 따른다. **66년생** 적이 많으니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라. **78년생** 고전하지만 뜻한 바는 이룬다.

양 — **43년생** 자녀 너무 믿으면 손해 본다. **55년생** 아랫사람 실수로 인한 역풍 조심. **67년생** 영양가 없는 일로 분주하다. **79년생** 스펙이 달리면 노력으로 극복할 것.

원숭이 — **44년생** 실속 없이 동분서주. **56년생** 돈 문제 신중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68년생** 집안의 근심이 해결돼 화평. **80년생** 말 많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액운 따른다.

닭 — **45년생** 고집부리면 자손도 등 돌린다. **57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69년생** 나서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꾀하는 일마다 척척 풀린다.

개 — **46년생** 예상치 못한 걱정 생긴다. **58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소망 이룬다. **70년생** 액운 물러났으니 큰 꿈을 향해 진군하라. **82년생** 떠난 연인 때문에 허탈하다.

돼지 — **47년생** 자존심 강하면 화를 부른다. **59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만 조심하면 무난. **71년생** 일이 잘 풀린다고 욕심부리면 재앙 부른다. **83년생** 돈거래 신중할 것.

이승훈, 크라머르 넘고 첫 금메달 부탁해

내일 스피드스케이팅 5000m 출전…또 한번의 기적 도전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스타 이승훈(26·대한항공·사진)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승훈은 오는 8일 오후 8시30분부터 시작되는 스피드스케이팅 5000m 예선과 결선에 출전해 소치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올릴 주인공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따내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바 있다. 당시 이승훈이 획득한 은메달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종목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메달이라는 의미도 지녔다.

이번 대회에서 이승훈은 2연패를 노리는 1만m와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팀추월에 잇달아 출전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선 '최강자' 스벤 크라머르(28·네덜란드)를 넘어야 한다. 5000m와 1만m 세계기록 보유자다. 이승훈이 올림픽 행운의 사나이였다면 크라머르는 불운의 남자였다.



크라머르는 밴쿠버 대회 5000m에서 이승훈을 가볍게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1만m 경기에서는 잘못된 지시를 내린 코치의 뼈아픈 실수로 금메달을 이승훈에게 헌납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객관적인 실력 면에서는 이승훈이 크라머르에게 뒤지는 게 사실이다. 크라머르는 밴쿠버 석패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며 여전히 '장거리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디펜딩 챔피언인 이승훈이 올림픽 무대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금메달을 기대해볼 만하다.

10일 남자 500m에 출전하는 모태범(25·대한항공)도 첫 금메달 후보 중 하나다. 그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5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빙속 사상 최초이자 당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만 12일 열리는 1000m 경기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3연패를 기대하는 샤니 데이비스(32·미국)를 넘어서야 한다. 데이비스는 월드컵 1~3차 대회 1000m에서 모두 1위에 올랐지만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열린 4차 대회에서는 모태범보다 늦게 결승선을 통과해 고배를 마셨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스피드 코리아' 금빛 담금질 스피드스케이팅 이강석(앞쪽 첫번째)과 이상화를 비롯한 단거리 선수들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메달 가격은 60만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속 실제 금 함량은 10g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가격은 약 60만원이다.

6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공임비를 제외한 소치 금메달의 실제 가격은 566달러(약 60만원)"라며 "지름 10cm이며 6g의 금과 525g의 은으로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소치올림픽 메달은 역대 올림픽 메달 중 가장 큰 축에 속한다. 소치올림픽 은메달의 가격은 323달러(약 35만원). 동메달은 3.25달러(약 3500원)다. 동메달은 구리와 아연, 주석 등의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양성운기자

소치 하이라이트

8~9일 한국 주요 경기(한국시간)

날짜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각	한국 선수
8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20시 30분	이승훈·김철민
	프리스타일스키	여자 모굴	23시	서정화·서지원
	바이애슬론	남자 10㎞ 스트린트 예선	23시 30분	이인복
	루지	남자 싱글 예선	23시 30분	김동현
9일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개인전 예선	1시 30분	최흥철·김현기
	크로스컨트리	남자 스키애슬론 15㎞ 예선·결선	19시	황준호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 예선·결선	20시 30분	김보름·노선영
	바이애슬론	여자 7.5㎞ 스프린트 예선·결선	23시 30분	문지희
	루지	남자 싱글 본선	23시 30분	김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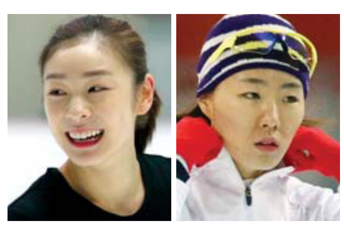
"김연아 우승확률 아사다 2배"

美 온라인 베팅업체 "한국 금 6개 수확 전망"

미국 최대 온라인 베팅 업체인 보바다가 김연아(왼쪽 사진)와 이상화(오른쪽)의 금메달 획득을 낙관했다.

6일 보바다가 예상한 종목별 우승 후보에서 김연아의 우승 배당률은 1.83으로 아사다(3.25)보다 금메달 가능성을 약 2배 높게 점쳤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세 번째로 우승 가능성이 큰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배당률 9.00)는 두 선수보다 한참 뒤졌다.

이상화의 우승 배당률은 1.30으로 김연아보다 더 낮았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의 모태범의 우승 배당률도 이 종목 출전 선수 중 가장 낮은 4.00으로 책정됐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 심석희는 여자 1500m에서 2.00, 1000m에서 1.80, 여자 3000m 계주에서 1.50으로 세 종목 모두 가장 낮은 배당률을 얻으며 3관왕 가능성을 높였다.

보바다는 이날 메달 레이스를 예측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처럼 한국이 금메달 6개를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순호기자 suno@

추신수 첫 한인 팬사인회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현지 댈러스 한인동포들과 처음 만난다.

추신수는 오는 8일 댈러스의 한인 대형 교회인 댈러스 뉴송교회에서 동포 어린이 대상 팬사인회를 개최한다고 6일 한인단체들이 밝혔다. 이날 사인회는 댈러스한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추신수는 2시간 동안 선착순으로 어린이 300명에게 사인을 해주고 격려할 예정이다.

추신수는 지난달 25일 첫 공식 팬사인회를 열었으나 구단에서 추첨으로 행사 참석자를 제한하는 바람에 많은 동포 어린이가 발길을 돌리자 한인 대상 팬사인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기자

꼴찌 동부 14연패 탈출

프로농구 원주 동부가 울산 모비스를 꺾고 14연패에서 벗어났다.

동부는 6일 강원도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모비스와의 홈 경기에서 61-58로 이겼다.

최근 14연패를 당하면서 이충희 감독이 물러나는 아픔을 겪은 동부는 2014년 새해 첫 승을 거두며 시즌 10승 고지에 올랐다. 연장전의 기운이 감돌던 상황에서 동부 이광재가 정면에서 극적인 끝내기 3점포를 터뜨리며 동부의 14연패가 끝났다. /박성훈기자

프로농구 전적

6일

동부	13	14	18	16	61
모비스	16	14	12	16	58
KCC	23	13	16	25	77
SK	15	15	21	14	65
신한은행	11	13	11	24	59
삼성생명	13	19	10	14	56

프로배구 전적

6일

러시앤캐시	0	3	현대캐피탈